



www.snuaa.org

# 서울대미주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18호 2012년 6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snuaausa@yahoo.com



상대 59학번(17회)을 워싱턴 한국전 메모리얼 파크 참전용사 보은 헌화

## “우리는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할것”

### 보은의 감사팻말과 함께 매주 생화로 헌화 매년 1만 달러 들여 올 8.15로 3년째 계속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올해로 62주년이 됐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에 참여한 미군은 3만7천여 명 사망에 8천100여 명이 실종됐고, 부상자 9만2천여 명의 귀중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우리 자유 대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이들은 소중한 인명을 바친 것이다. 상대 59학번들은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조금이나마 기리고자

워싱턴 DC.의 Korean War Memorial Park에 있는 참전 용사비에 올해로 3년째 매주 생화를 헌화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We remember you forever)” ‘서울대 상대 17회 일동’ 이 적힌 팻말과 함께. 이 일을 처음 시작해 추진한 것은 배창모(상대 59) 동문이다. 배창모 동문은 동기생 7명의 뜻을 모아 50여 명의 동기들로부

터 해마다 1만 달러를 모아 워싱턴에서 부인이 화원을 경영중인 현운중 박사에게 보내 매주 생화로 헌화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배창모 동문의 글이다. “금년 8월 15일이 헌화 3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이 헌화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2006년 2월 남미 크루즈 여행 중 미 해병대 예비역 대령을 만났는데 인사를 마치고 마자, ‘한국인이나’ 고 확인하더니, ‘나



는 한국전 때 홍남철수 작전의 책임자였다. 당시 우리는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 10만 명의 한국 피란민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무기·식량·탄약까지 바다에 버리면서 철수작전을 수행했다. 그런데 당신네 한국인들은 은인인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겠단 말이나? 고 하는 노기면 표정을 뵈고 어쩔 줄을 몰랐었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황당해서 아무 말을 못하

←지난 5월 28일 Memorial Day에 멀리 Ohio 주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의 형제가 워싱턴DC Memorial Park까지 찾아 왔다. 형 Tom Ogle(83세)과 부인, 그리고 동생 Harry Ogle(82세)씨로 이들을 인터뷰하고 테크기 3개를 기념으로 드렸더니 우리 동문들의 '보은의 헌화 캠페인' 과 함께 너무 고마와 했다. 오른쪽 사진은 6.25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헌화 밑에 “우리는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 (We remember you forever)” ‘서울대 상대 17회 일동’ 팻말 <미주 동창회 오인환 차기회장 촬영>

고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모기소리로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맥아더 장군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를 구해준 미국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 출장갈 때는 꼭 맨하탄 배터리 파크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고 말하고는 ‘일부 못나 한국인들을 용서해 달라’ 고 말씀드렸습니다. <2면에 계속·편집주간>

## 이달의 초대석

김한교 명예교수(15면)

## My Journey to America 김미환(19면)

특집 <6.25 62들>60년만의 보은애후(4~5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LEE JONG-WOOK  
A Life in Health and Politics  
Desmond Avery  
World Health Organization KOFIH

### 세계 보건기구 이종욱 전 사무총장 WHO 본부에서 전기(傳記)출간

봉사와 인술(仁術)로 평생을 살았던 고(故) 이종욱(1945-2006) 세계보건기구(WHO) 전 사무총장의 전기(영문판·사진) 출간 기념회가 고인이 별세한 날인 지난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렸다. 이종욱 전 총장 전기는 WHO와 한국 국제 보건의료재단(KOFIH)이 비용을 부담해 출간한 것으로, WHO 연례총회 기간 중 열린 출간 기념회에는 이 전 총장의 부인 가부라키 레이코(67) 여

사, 현재의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한광수 KOFIH 총재와 각국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석해 출간을 기념했다. 이 전기의 한국어판은 올해 하반기 출간될 예정이다. 이종욱 전 총장은 모교 의대 제학 시절 경기도 안양 나자로 마을에 한센병(나병) 환자 돕기 봉사 진료에 나섰다가 가톨릭 신도로 봉사활동을 하던 일본 출신 레이코 여사를 만나 결혼했다.

이종욱 전 총장은 지난 1983년 피지에서 WHO 남태평양 한센병 퇴치팀장을 맡았다. 1994년부터는 WHO 본부에서 백신 전략·계획 관리국장 등을 맡아 연구하다가 2003년 한국인 최초로 WHO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이종욱 전 총장은 지난 2006년 WHO 총회를 준비하던 중 개막 이틀을 앞두고 집무실에서 과로로 쓰러져 급히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아쉽게도 회복되지 못하고 순직했다. WHO는 지난 5월 24일 태평양 한센병 재단에 이종욱 공공보건 기념상과 함께 상금 10만 달러를 수여했다. \*\*\*

‘미주 동창회보’ 는 동문님들의 구독료(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는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90248



↑ 워싱턴 DC의 Korean War Memorial Park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 기리기 위한 헌화 행사의 주역들인 상대 59 학번(17회)중 5명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한국의 국립 현충원에서 순국 영령들에 대한 참배를 마치고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김승만(한테크 회장)·김항덕(중부 도시가스 회장)·박용성(두산중공업·대한체육회 회장)·한병무(삼화향로 회장)·배창모(금통투자인회 회장), 이 외에 박영주(이건산업회장)·심춘석(이포 컨트리클럽 회장)등 2명은 사업차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미주지역 동기로는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아래 사진 왼쪽)과 지인수 편집위원장(오른쪽), 김규조·김채광·김현수·노광길·이광연·정재화 등문 등이 있다.



수)등과 만나 전후를 설명하고 뜻을 같이 해 모금운동을 벌여 50명 이상의 동문이 참여함으로써 이 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헌화는 버지니아에서 부인이 '선바람'이라는 화원을 경영하는 현운중 박사(전 미연방정부 농무성 공무원)께 부탁하여 한 주일도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헌화된 꽃이 없거나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원을 관리하는 분들도 저희들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뜻이지만 서로 공감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0년 광복절부터 한국인의 헌화가 놓이자 미국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고 한다. 현운중 박사는 "꽃을 설치하고 있으면 미국인들이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하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 그 날도 화원을 유심히 살펴보던 루이지애나 주립대 로스쿨의 데이비드 소이어씨는 "사촌형이 과거 한국에 파견돼 비무장지대(DMZ) 인근 부대에서 근무했다"며 "한국 군함이 북한에 의해 침몰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이런 노력이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편집주간>

<1면에서 계속>  
같은 해 6월 뉴욕에서 공부하는 딸을 만나러 갔다가 배터리 파크에 들러 6.25가 며칠 뒤였는데 바래고 비바람에 쓸린 초라한 화환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즉시 동기생 박용성(두산그룹 회장)·김항덕(전 SK부회장, 중부가스 주 회장)·한병무(삼화향로 회장)·김승만(주한텍 회장)·심춘석(이포 컨트리클럽회장)·곽수일(모교 명예교



**야구광 정운찬 전 국무총리 메이저 리그(MLB) 캐나다서 첫 시구**  
'야구광'으로 알려진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경기의 시구자로 나섰다. 정운찬 전 총리는 지난 6월 1일 오후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간 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했다. 이번 시구는 토론토 소재 스코필드 추모재단(이사장 서준용)이 정 전 총리의 캐나다 방문 일정에 맞춰 블루제이스 구단 측과 협의해 성사됐다.

정 전 총리는 이번 캐나다 방문기간에 스코필드 추모공원 개원식에 참석하고 토론토 대학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4일은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강연한 뒤 귀국했다. 캐나다 국적인 프랭크 스코필드(1889-1970) 박사는 의학과 및 선교사로 구한 말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3.1운동을 지원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이다. 이에 정 전 총리는 평소 스코필드 박사를 '자신을 키운 4명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꼽아왔다. 스코필드 추모재단은 한국 정부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각각 80만 달러, 40만 달러를 지원받아 토론토 동물원내에 스코필드 박사 동상을 세우고 연못과 정원을 조성하는 등 추모공원 1단계 공사를 마쳤다.\*\*\*



미주 동창회 방석훈 상임고문

관연회 및 동창회보 편집위 참석

미주 동창회 방석훈(농대 55) 상임고문이 지난 4월 말 서울을 방문해 5월 8일 임광수 총동창회장이 주관한 관악 언론인 모임인 '관연회'의 임원 모임에 초청돼 참석했다. 이날 총동창회 측에서는 임광수 회장을 비롯해 윤근환·손일근·공대식 부회장 등, 동문 언론인으로는 김형민 SBS 논설위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최승묵 한국경제 기획심의실 심의위원, 이상기 아시아 기자협회보 발행인, 김진국 중앙일보 논설위원

실장, 이강덕 KBS 해설위원, 이동식 KBS감사, 오재식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 박성희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어 5월 15일에는 광화문 Press Center 회의실에서 마련된 동창회보 편집위원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회의의 뒤 방 고문은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함께 마포의 신축 동창회관을 둘러보았다. 사진은 임광수 총동창회장(오른쪽)이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방 고문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이다.\*\*\*

모교 장승화 교수 WTO상소기구 위원에 선출

한국 국적자로 처음 선출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지난 5월 24일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열어 지난 5월 9일 장승화 서울대 로스쿨 교수(40)를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한 선정위원회의 권고를 공식 채택했다. 이로써 장승화 신임 상소기구 위원에의 선출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장승화 위원은 6월 1일부터 4년 동안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 국적자가 WTO 상소기구 위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의 위원은 1회 연임이 가능하다. WTO 상소기구 위원은 국제통상분

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C)와 유사한 대법관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 외교통상부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 국적자는 약 50개 기구에 4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선출직이나 재판관 등 고위직은 약 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장 위원은 모교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런던 국제중재법정(LCIA) 중재인, 국제 중재법원(ICC) 중재인, WTO 패널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처럼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한인 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시사만평** 박준창(인문대 79·변호사)

국회의원도 역시 서울대

제19대 국회에 서울대 출신이 132명으로 전체 의원 중 44%

**차 례**  
3. 긴축이나, 성장이나/ 고숙의 전설/ 대한민국은 서부의 무법천지인가?  
4-5. <기획특집> 6.25한국전쟁 62년, 60년만의 보은(報恩) 해후  
6. 김난도 교수의 외침, 글쓰기/ 너희가 비빔밥을 아느냐?

7. <인류학>말없는 남자 당신은 원시인/ 유편에서의 뜨거운 여름을 꿈꾸며  
8. <범창일화>돈 앞의 이전투구, 결국 공멸  
9. 세뇌시대/ 워싱턴의 호안 미로 순회전  
10-12. 동문 동정  
13. <특집 암>전문가들과 환자가 함께 토론해 결정/<한시감상>이백의 야숙산사  
14.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기쁘다/ <동문

시 감상> 나는 어쩌라고  
15. <이달의 초대석> 김한교 Cincinnati대 명예교수  
16-18. 지역 동창회 소식  
19. <My Journey to America>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  
20. 6.25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비극/ 동문 여행 예찬기

21. 고국 동문 동정  
22-23. 동창회비·후원회비 명목/ 미주 동창회 Alaska Cruise  
24-29. 동문 업소록  
30-32. 동창회 각 지부 회장단 명목/ 편집 후기/ 광고



국제경제 칼럼

# “긴축이나, 성장이나”



백순(법대 62)  
미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동창회보 논설위원

강해진 극우당과 극좌당도 긴축정책에서 탈피할 조짐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긴축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할 경우 산디미의 국가부채에 억눌려 있고 복지주의 시장경제의 체제하에서 높은 실업과 저성장의 오랜 경제구조에 시달려온 유럽 경제가 과연 건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아니 어떠한 성장정책을 추진해야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먼저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긴축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성장정책의 성공적인 방향을 제시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긴축정책은 첫째 '부정적인 승수효과(Negative Multiplier Effect)'를 초래하였다. 경제가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부족으로 침체에 빠져 있을 경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하게 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여 경제가 몇 배로 성장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승수효과(Positive Multiplier Effect)'를 날게 된다는 이론이 케인즈 경제학의 정책논리이다.

그런데 긴축정책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세수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나 경제성장은 줄고 실업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하버드대 Laurence Summers 교수는 "1%의 재정적자 삭감이 GDP를 1.5%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긴축정책의 둘째 문제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감소를 위해 지출을 줄이면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늘려 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생산적 시장경제 효과(Productive Market Economic Effect)'가 실현되지 아니한 것에 있다.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최근 프랑수아 올랑드의 프랑스 대통령 당선은 유럽 경제위기를 풀기 위한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과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유럽 경제가 막대한 국가부채로 인하여 국가부도위험과 더불어 더딘 경제침체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유럽 경제위기를 치유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시행해 왔던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자는 '긴축정책(Austerity, Fiscal Compact)'이 그리 바람직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7개 유로존 경제의 금년 3월 실업률이 1999년 유로존 실시 이후 최고인 10.9%를 기록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24.1%로 치솟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인 독일도 4월 실업률이 6.8%로 금년 들어 벌어진 모든 고용을 깎아 먹은 경제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직후의 일성으로 "긴축정책은 유럽의 운명일 필요가 없다"라고 부르짖은 바와 같이 '성장정책(Growth Compact)'이 유럽 경제위기 해결의 길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찌기 이탈리아의 테크노크라트 수상인 마리오 몬티도 성장위주의 경제위기 해결을 제창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그리스의 의회 선거로 입권이

## 6.25 회고수필

### 고속의 전설



최용완(공대 57)  
동창회보 논설위원·작가

사실을 들려주었다. "그날 밤 정 총경은 20여 명의 빨치산을 포위하고 직접 전투를 주도하여 다섯 명을 생포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살하였어요. 하지만 그 전투에서 정 총경이 10여 년 동안 자기 붙쳐온 아끼고 형제처럼 사랑하던 부하가 빨치산의 총탄에 맞아 숨졌어요. 밤새 슬픔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다음 날 그의 시체를 산에 묻고 그는 온종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서 평소 벽에 걸어둔 일본도를 빼어들고 생포한 포로들을 한 명씩 밖으로 끌고 나와 다섯 명 모두 죽였어요. 피가 지리산 계곡을 붉게 물들었지요. 그리고 사흘 동안 혼자서 자신을 방안에 가두고 먹지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그 이야기를 듣고 괜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직 어려웠던 고등학생 나이에 우리 편과 남의 편이 남은 가족의 슬픔을 함께 느끼며 시대가 가져온 어수룩에 없었던 듯 싶다.

그 후 고모와 고속은 두 팔을 출산하여 다섯 가족이 됐다. 김해 경찰서장이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태운 열차가 김해 부근을 지나던 중 술을 마신 한 농부가 철길에 머리를 베고 잠들었다가 기차에 치어 죽었다. 영문을 모르던 고속은 그로 인해 해고 통지를 받고 그 날부터 실업자가 되었다.

고속은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했고 여기 저기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해봤지만 오래 머물 수 못하고 집에서 고모 얼굴만 보고 살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서 사라졌다.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찾지 시작했고 많은 친척이 전국 방방곡곡 모든 곳을 다 찾아다니며 3년을 보냈다. 그 동안에 고모는 숙병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아들은 갓자기 눈이 멀어 장님이 됐으며 집의 재산은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면 유로존 국가들이 긴축정책을 접거나 병행하여 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시행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 중 한 분이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암자에서 삭발하고 사는 고속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다시 소식이 끊겼다.

해방 후 격동기에 우리가 지냈던 뼈아픈 기억이 반 세기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지금도 가족들이 남과 북으로 헤어져 다시 서로 보지 못하고 한 평생 그리워 하며 살아온 부모 형제·자매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가슴 깊이 퍼 흐르는 한을 품고 세상과 작별해간다.

풀리개를 체념하듯 역사는 느리게 게으름을 부린다. 지금도 북한 땅은 눈을 가려 세상 밖을 보지 못하고 입을 막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가족 친구 만나보고 싶어도 찾아가지 못하는 자유없는 나라다. 북한 동포에게 남한 동포를 미워하는 구호를 외치게 하며 선군 정신을 무장시키는 음모로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고 있다. 무자비한 공개처형으로 동포를 공포 속에 떨게 하며 핵무기를 개발하여 계속해서 남한을 위협한다.

세계의 자유인이 반세기 지나도록 구속된 사회에서 북한 동포를 구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낄 적마다, 그날 밤 지리산 토벌대의 슬픈 눈물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마르지 않는다.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숙부를 끝내 찾지 못하듯 남한과 북한은 영영 통일하지 못하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세월이 갈수록 숨김 속에 더욱 가난해지는 북한 땅과 세계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남한 땅 사이에 벽은 자꾸만 높아져 보인다.

그러다 그 벽이 무너지면 동독과 서독의 경우일까, 일본의 쓰나미처럼 큰 상처가 될까. 살아 있는 동안 죽도록 기다린 가족을 만나고 눈물이 웃음으로 승화하는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 “대한민국은 서부의 무법천지인가?”



류근일(문리대 61졸)  
조선일보 전 주필

이석기 키즈는 참 좋겠다. 대한민국 치안당국의 특별대우를 받으.

그들은 분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치안당국은 애초 그들을 수사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징역 산 용팔이란 억울하게 됐다. 통합진보당 당권파들은 참 좋겠다. 부정투표를 해놓고도 큰소리 탕탕 치고 사니...

대한민국이란 OECD 회원국에겐 선거에 관한 법률도 아예 없는가?

그런 나라를 받아들인 OECD는 그렇다면 '황야의 무법자'들이 판치는 서부(西部)의 국제기구였던 모양인가?

이석기·김재연은 참 좋겠다. 이제 금배지 달고 국가기밀까지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으니.

너군다나 그런 그들의 국회 입성은 "안된다!"고 막을 방도가 딱히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라니, 그들은 정말 기분 좋게 지냈다.

너군다나 그런 현실에 대해 명색이 비(非)좌파라는 새누리당까지도 시종 '타치고 방관'이니 이석기·김재연은 정말, 정말 행복하겠.

필자는 잊고서 서울 신사동 후미진 뒷골목에서 무심코 담배꽂이를 버렸다. 땅을 보며 노리던 구정 단속반한테 딱 걸

러 과태료 3만원을 물었다.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그러나 어젯 밤 가만이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느 못난 x은 담배 풍초 하나로 벌을 받고, 어느 잘난 분들은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도 대한민국 사직당국과 여당원들의 방치 혜택을 받고...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나라 꼴이, 나라 꼴이 아니다. 정권이, 정권이 아니다. 당국이, 당국이 아니다. 여당이, 여당이 아니다. 법이, 법이 아니다. 무법천지다.

센 x이 장땡인 세상이다. 겁난다. 도망이라도 쳐야겠다. 그러나 도망 칠 데가 있어야지! \*\*\*

것이다.

첫째 방향은 정부의 지출을 복지중심에서 인프라 구조에 대한 투자 등 경기진작 정책(Stimulus Policy)로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한 지출의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방향은 유럽 경제구조 자체의 개혁이다. 노동시장을 융통성있게 한다든지, 기업가 정신을 신장한다든지, 서비스 시장을 단일화 한다든지, 하는 구조개혁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기진작 정부지출과 경제구조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성장정책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산디미같이 쌓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장 정책과 긴축 정책 둘 두 정책의 시기와 속도도와 정도를 황금율로 병합·조정·시행하는 유럽 경제정책 결정자들의 지혜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동문 제인들이 기고해주시는 모든 글들은 본 동창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획특집> 6.25 한국전쟁 62돌

# “60년만의 보은(報恩) 이후”



한창섭(문리대 57)  
동창회보 논설위원

6.25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한창섭 등문은 14살의 나이에 미군부대 하우스보이였다. 한 등문은 당시 평생 잊을 수 없는 John Holt 해병대원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뒤 한 등문은 그와 헤어져 있다가 무려 60년만에 그 가족을 만나는 감격을 누렸다. 이 사실이 해당지역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이를 전제한다.

지난 2010년 초 웹사이트 ‘구글(Google)’ 에 들어가서 6.25 한국전쟁 사이트를 찾던 중 한국전쟁 중에 알았던 사람들을 찾는 ‘Korean War Project’ 라는 사이트를 발견하여 허허실실로 ‘별자’가 항상 잊지 못하고 있던 해병대 사병을 찾는다’고 적어 넣었다.

▶ 잊지 못할 은인= 필자가 찾은 사람은 존 홀트(John Holt)로 필자가 한국전쟁 중 전선에서 미해병대 제1사단 11연대 2대대의 하우스보이로 일할 때 동고동락을 함께 하면서 필자를 마치 친동생처럼 돌보아 준 미시시피 주 출신의 당시 20세 청년이었다.

필자는 1.4 후퇴 때 14세로 배가고파 처음엔 한국군 부대에, 뉴질랜드 부대에, 그리고 1951년 4월부터 1953년 9월까지 미해병대에 있었는데 처음 하우스보이, 그리고 1952년 여름부터는 공식 봉역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그 뒤 전쟁이 끝나고 오늘 날까지 당시 필자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준 John Holt 해병대원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Korean War Project를 통해 그를 찾게 되던 다행이고 못찾아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썼다.

“I am looking for Corporal John Holt from Mississippi. I served as a houseboy and interpreter for the 2nd battalion, 11th Marines, 1st Marine Division during the Korean War from April 1951 through September 1953. The Marines called me ‘Hahn’.”

그리고 필자의 이름과 e-mail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넣었다.

▶ 뜻밖의 회신= 그런데 지난 2010년 2월에 뜻밖에도 아놀드 테일러라는 분으로부터 회신이 왔다. 그는 Holt와는 친한 친구로 Holt는 약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여하간 잊지 못할 좋은 은인을 60년만에 만나보려는 필자의 꿈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필자는 지난 2010년 4월 28일 뜻하지 않게 이번에는 John Holt의 아들로부터 e-mail을 받게 되었고 이어서 전화가 걸려 왔다.

그는 “이름이 Ted Holt로 현재 앨라배마 주에서 변호사로 일한다”면서 “아버지는 10년 전 타계하셨지만 어머니는 생존해 계신다”고 전하면서 “뉴욕에 오게 되면 꼭 만나자”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6.25 한국전쟁에 참전 중 연인이었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필름을 인화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진의 주인공을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 “아버지는 10년 전 타계하셨지만 어머니는 살아 계신다”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비행기로도 5-6시간 걸리는 먼 곳이었지만 자동차를 운전해서 갔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혹시 사진들을 분실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 여섯장의 사진= 그러던 중 지난 2010년 9월 6일 테드가 “사진들을 지금까지 못 보내주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e-mail과 함께 첨부 파일로 1951년 6.25 한국전쟁시에 자기 아버지가 찍어서 애인에게 보낸 필름을 인화한 6장의 사진들을 보내왔다.

필자는 첨부 파일을 열어보고 아연실색했다. 6장의 사진 중 5장이 바로 필자가 14세 때 한국전쟁통의 전선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하루 하루를 보냈던 어려웠던 소



↑ 필자(왼쪽에서 세번째)는 지난해 1월 15일 앨라배마 주 버밍햄에서 60년 전 은인인 John Holt의 가족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는 필자의 아내 박경원, 일곱번째가 홀트의 부인 진 홀트. 이날 필자 부부를 만나보기 위해 막내 딸 Julie 부부는 멀리 뉴올리언즈에서 왔으며 장남 Mike 부부, 3남 Brian 부부, 장녀 Claire 부부, 그리고 손녀와 손자들이 멀리서도 모두 모여 주었다.

년 시절의 모습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쟁 중 동생처럼 필자를 보살펴 준 John Holt가 나같은 하우스보이의 사진을 찍은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다.

필자가 더욱 감명을 받은 것은 60년 전 자기의 연인이 보내준 사진을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까지 버리지 않고 정성껏 보관했다가 그 사진의 주인공에게 보내주었다는 사실이었다.

▶ Holt부인 방문 계획= 필자 부부는 지난 해 1월에 앨라배마로 Holt 부인과 아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1951년 6.25 한국전쟁 중 14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Holt의 막내 아들 Ted Holt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미 자주 연락을 해온 사이였다.

그래서 필자 부부가 2011년 1월 중에 비록 필자의 은인은 이미 지난 2000년 심장마비로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버밍햄에 가서 Holt의 부인을 비롯해서 그의 자녀들과 상봉하고 싶다는 뜻을 알려주고 그해 1월 15일로 결정하여 필자 부부가 그 여행을 하게 된 것이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서는 당시 버밍햄으로 가는 직행 비행기가 없어서 결국 비행기로 가도 5-6 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 Holt가족과 첫 상봉= 우리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만찬장으로 들어가 조금 있으니 John Holt의 부인 Jean Holt, 뉴올리언스에서 필자 부부를 만나보기 위해 이날 도착한 막내 딸 Julie, 장남 Mike 부부, 3남 Brian 부부, 장녀 Claire 부부, 그리고 손녀와 손자들이 차례 차례로 도착하여 필자 부부와 포옹으로 감격스러운 첫 상봉을 시작했다.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상당히 세심하고 사무적인 인상을 필자에게 준 Jean은 필자에게 “전쟁 중에 어떻게 자기 남편과 만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부터 물었다.

이어 자기 남편과 같이 지낸 시절에 대한 궁금한 일들에 관해, 그리고 어떻게 필자가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경로로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어디서 결혼을 했으며 자녀가 몇인가 등등, 필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 하나 하나 설명하면서 대답했다. 사실 처음 만나는 입장이었지만 이같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자세하게 모두 하느라고 저녁은 거의 먹지 못했다.

▶ John Holt의 가정= Holt는 195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해병대에 입대하여 9월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면서 복진,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의 대량개입으로 미해병 1사단이 완전히 포위되어 수천의 전사자를 낸 참혹한 홍남 철수 작전에 참가한 용사였다.

↓ 아래의 사진들은 한창섭 등문이 14세때 Holt가 찍은 것으로 부인이 60년간 보관했다가 한 등문에 보내준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1951년 12월 미국으로 돌아온 후 1952년 제대하여 대학에 입학했고 2년 쯤 다니다가 중퇴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건축자재 판매 회사를 설립해 경영했다. Jean과는 오랜 연애 끝에 1954년 11월에 결혼했다고 한다. 독특한 가톨릭 신자인 홀트 부부는 아들 4명과 딸 3명, 모두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중 딸 2명은 입양아로 홀트 부부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이로써 입증되는 것이었다. Jean은 필자에게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즘 미국을 싫어하느냐”고 물어와서 “다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었다. 또한 “한국의 교육상의 문제가 있고 좌익 반미 세력을 언론이 너무나 부각시켜 마치 한국의 젊은이들이 모두 반미주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해주었다. 이어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필자는 강조했다. ▶첫 만남이나 식구같은 느낌=우리들은 비록 처음 만났지만 마치 한 집안 식구와 같은 느낌을 가졌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필자 부부를 위한 만찬은 모두 끝났다. 필자의 아내가 준비한 선물을 모든 홀트 가족에게 하나 하나 나누어주었다. 다음 날 조찬은 Ted가 17일 텍사스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변호

사로 참석해야 해 16일 텍사스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필자 부부가 마련한 16일 담례 만찬에는 참석할 수 없어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하였다. ▶지역언론에 대서특필=그런데 16일 버밍햄 뉴스에 15일 저녁 우리들의 상봉기사가 1면에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돼 있어 홀

### “John Holt 가족과 상봉 이야기를 지역 신문 ‘Birmingham News’가 대서특필”, Holt 묘소 성묘에 Jean 여사, “당신은 John에게 은혜를 갚고도 남았습니다!”

트 가족은 물론 필자 부부의 엘라메마 방문에 더욱 호뭇함을 느꼈다. 조찬이 끝난 후에 Jean, Ted 그리고 필자 부부는 호텔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존 홀트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했다. ▶John Holt 묘소에 성묘=필자는 “주님, 고난의 시기에 존 홀트로 하여금 전혀 모르는 나라에 와서 처음 만난 14세 소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간단히 기도했다. 또한 “아마도 천국에서 John이 지금 내려다 보고 호뭇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Jean에게 말했다. 성묘를 마친 후 필자 부부는 16일 마틴 루터 킹 데이 공휴일에



↑필자와 존 홀트의 부인 Jean(가운데), 그리고 멀리 뉴올리언즈에서 필자를 모기위해 온 막내딸 줄리(왼쪽) ←한국전 참전 이후 미국에 귀국한 존 홀트가 1954년 11월 Jean과의 결혼식 때 촬영한 사진이다.

버밍햄의 민권 연구소와 민권 박물관을 관람하기로 했다. 1963년 킹 목사가 주동이 되어 대대적인 흑백차별 철폐 민권운동을 시작한 곳이 바로 버밍햄이다. 필자 부부는 버밍햄 민권 박물관에 갔다. 원래는 입장료가 성인의 경우 12 달러인데 이날만은 무료여서 그런지 수백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서 입장하는 데 약 2시간이 걸렸다. 필자 부부는 흑인들이 얼마나 심한 차별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폭로이 실감하게 되었다. 홀트는 미시시피 출신으로 엘라메마에 못지 않게 흑백차별이 심한 주에서 온 사람으로 많은 미군들이 나를 포함한 한국인들에게 “Gook!”이라고 불렀지만 그

received hundreds of e-mails and messages from people who saw the article in the paper. It is amazing how an act of kindness today can effect tomorrow.” 라면서 필자 부부의 이번 엘라메마 방문을 평가했다. 다음은 Thomas Spencer기자에 의해 ‘After 60 years, Korean man meets Birmingham family of Marine who befriended him during war’ 라는 타이틀로 The Birmingham News에 게재된 내용이다. BIRMINGHAM, Alabama — Sixty years ago in the midst of the Korean War, a Marine from Meridian, Miss., John Holt, struck up a friendship with a Korean teenager, Changsup Chuck Hahn,

wife, Kyung on, about their lives then and now. The reunion was made possible through some serendipity and Korean War Project's Internet site. After reading the World War II prisoner-of-war survivor saga, “Unbroken.” Jean Holt sent a note to her son, Edward “Ted” Holt, wondering if a Marine mentioned in that book might have later served with John Holt in Korea. That took Ted Holt to the website, Korean War Project, where under a listing for his father's unit he found a message Hahn had posted looking for John Holt from Meridian, Miss. Though they'd lost touch after the Holt's tour of duty ended, Hahn had always wanted to reconnect, but by the time he started searching for Holt in Meridian, Holt had married Jean and moved away. Holt, who'd gone into business selling aluminum doors and windows, lived in Cleveland for a time and moved to Birmingham in 1976. The Holts raised seven children. Semper fidelis Ted Holt said his father didn't talk about the war, recalling how as a child he'd once asked if he'd ever killed an enemy soldier in battle. His father responded simply, “They shot at me and I shot back.” He went to the barber every Saturday and kept his hair in a crewcut. He always wore a Marine Corps ring. Jean Holt told Hahn that she's remembered Holt writing about Hahn in his letters. When he returned statewide, the couple talked about what they might do to help Hahn and another young man named, Kim, who Holt had befriended. “John had written so much about you and Kim,” she said. “But we were young and didn't have any money.” Meanwhile, Hahn came to the U.S. in 1966 as a Fulbright Scholar and earned a master's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Iowa. Trained as journalist, Hahn worked for the Korean equivalent of the Associated Press. He was a correspondent in Washington, D.C. for 6 years during the Johnson and Nixon Administrations and covered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for 8 years. Hahn later held positions Korea and New York before returning to live in the U.S. Retired, he now divides his time between New Jersey and West Palm Beach. Today, Hahn and Holt's widow plan to visit Holt's gravesite. Hahn has written an account of his relationship with Holt and has published it online in Korean. He hopes that young people in South Korea read it and realize how the role U.S. played in helping the country rise to among the top 20 economies in the world. “The youth don't appreciate how much the United States contributed to South Korea,” he said. Join the conversation, add a comment or email: tspencer@bhamnews.com Inappropriate post? Alert us.\*\*\*



는 나에게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Holt가족을 만찬에 초대=필자 부부는 당초 좋은 한국식당이 있으면 홀트 가족을 한국 음식점에서 대접하려고 계획했으나 버밍햄에는 제대로 된 한국 음식점이 없어 호텔 부근 이탈리아 음식점 ‘Brio’에 아이들을 포함한 홀트 가족 모두를 초대했다. 둘째 아들 Jim 부부는 사업상 뉴욕에 출장 중이었고 Ted는 텍사스에서의 재판 관례로 참석할 수 없어서 22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더욱 그들을 감명깊게 만들었던 것은 필자의 아들 석우 Douglas가 식당에 연락해 저녁값을 이미 지불해 놓았다는 사실이었다. ▶당신은 은혜를 갚고도 남았습니다=홀트의 부인 Jean은 필자에게 “당신은 존에게 은혜를 갚고도 남았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한 평을 했다. Jean이 필자 부부에게 보낸 19일자 감사 편지에는, “Let me thank you once again for making the effort to meet my family.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for all of us.” 라고 쓰여 있었다. 장남 Mike는 “I cannot tell you what your visit has meant to all of us. You gave us memories we will treasure always. I have

관악세대/Acro광장

# 김남도 교수의 외침, '글쓰기'



**이원영 (사회과학 81)**  
동향회보 편집위원  
미주 중앙일보 국장



'김남도'란 독특한 이름을 들어 보셨는지. 모교 소비자학과 교수다. 최근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으로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80년대 학번이다. 아마 82나 83쯤인 거 같은데 찾아보기 귀찮다. 서울대 교수로는 '강남좌파' 진보는개인 법대 조국 교수와 함께 이름을 가장 많이 날리는 386세대 교수다. 김남도 교수는 후학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한 것 같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교감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겪은 경험담을 책으로 냈다. 그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다. 일단 책 이름을 끝내주게 잘 지었다. 무척 감각적이다. 함축적이다. 제목만 보아도 대충 내용이, 문체가 드러날 것 같았다. 요즘같이 책을 읽지 않는 세상에 100만부가 팔리고 중국어판까지 나왔다고 하니 대단하다. 어린 대학생들에게 주는 조언이니 내가 읽어서 무엇하랴, 하는 생각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책방에서 집어 들고 말했다. '나도 대학생이나 뭐 다를 게 있는데... 나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 하면서. 결론적으로 책을 잘 골랐다. 세 시간만에 다 읽었다. 일단 글이 술술 잘 읽혔다.

앞 부분을 읽으면서 '교수라는 사람이 참 글을 잘 쓰네' 그런 생각을 했다(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는 교수들은 참 글을 재미 없게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 아크로 교수들은 말도 ㅋㅋㅋ).

앞 부분을 읽으면서 이 양반은 어찌 글을 소설가 김훈처럼 쓴다, 그런 생각을 읽었 했다. 그런데 뒤에 자신의 롤 모델이 '김훈'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단원이 나온다.

글쓰는 것이 직업인(사실은 글기동인) 나로서는 글쓰기에 관한 부분에서는 유심히 읽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그 부분에 관한 얘기다. 그 함축의 제목은 '글은 힘이 세다'다.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대가 마지막으로 글을 쓴 것은 언제인가. 미니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린 몇 줄짜리 조각글 말고, 기승전결을 갖춘 온전한 한 편의 글을 포박포박 적은 기억은 언제가 마지막인가?"

그의 말은 이어진다.

"그대가 어떤 일을 하는 만드시 익혔으면 하는 단 하나의 역량을 들라면, 나는 주저 없이 글쓰기 능력을 들고 싶다... 하지만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잘' 글을 쓰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다. 흔히 글을 잘 쓰는 것은 작가나 학자의 특목이지, 본인하고는 별 상관없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이 공계나 예술계 쪽이라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언뜻 글과 멀어 보이는 전공자가 글을 잘 쓰면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

"...한비야씨가 좋은 예다... 만약 그의 글솜씨가 아주 형편 없어서 그런 책(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을 출간할 임무를 내지 못했더라면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한낱 여행객에 지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비단 한비야씨 뿐이 아니다.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 동양미술사 김병중 교수, 첼리스트 장한나씨처럼 자기 전공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들이 명쾌한 언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때, 그 울림은 예상치 못하게 표현하고 알리는 데 걸린 만만하지 않다. 그러니 비단 소설가들에게만 좋은 글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글은 여러 모로 힘이 세다."

이렇게 글쓰기 예찬론을 편 저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그것은 타고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풀어놓는다.

"내가 글을 아주 잘 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단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왔기에 이런 책이나마 쓸 수 있게 됐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잠시 내 얘기를 할까 한다."

그렇게 화두를 꺼낸 저자는 그의 진솔한 노력을 얘기한다. 대학생 때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쓰고 싶은 밤 때문에 글을 잘 쓰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우선 시를 외웠다. 버스 안에서 그걸 외웠다. 시인들의 글솜씨가 내게 녹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나는 또 유명한 작가의 글을 끊임없이 옮겨 적었다. 지금도 문체가 좋은 글을 보면 이면지에 그대로 옮겨 적어본다. 컴퓨터로 치면 안된다. 문장의 호흡을 길게 외워서 종이어나 펜으로 꼭꼭 눌러서 빼겨 적으

# "너희가 비빔밥을 아느냐?"



**김종하 (문리 영문85)**  
동향회보 편집위원  
미주 한국일보 국장

우리는 종종 비빔밥을 먹는다. 비빔밥이란 게 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밥에 반찬을 비비면 되니 말이다.

식은 밥이 남았을 때 큰 양푼에다가 김치에, 나물에, 남은 반찬 털어 넣고 고추장으로 쓱쓱 비비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된다.

이런 비빔밥이 요즘 인기가. 특히 한국 정부가 한식 세계화 사업을 하면서 내세우는 요리 중 하나가 비빔밥이다. 형형색색 보기 좋은 데다 온갖 채소가 들어가 건강식이요 영양식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비빔밥' 하면 떠오르는 게 '전주비빔밥'이다. 필자는 고향이 전주다. 그러니 비빔밥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해야 할까. 어려서 고향의 전주 비빔밥 기억은 어찌 다 먹는 '특별식'이었다는 거다. 시내 전주 비빔밥 전문 식당에 가서 어찌다 외식을 할라 치면 어린 마음에도 값이 비쌌다는 기억이 있다.

그런데 전주비빔밥이 왜 유명한가. 우리가 집에서 양푼에 쓱쓱 비벼먹는 그냥 비빔밥하고는 뭐가 다르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풀 기회가 있었다. 몇년 전 모처럼 고향을 찾았다가 옛날 살던 집 근처 비빔밥 전문 식당에 들르니 그 안에 '비빔밥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이곳에 설명된 내용에 의하면, 대부분의 음식들이 그러하듯, 비빔

밥도 각 지방마다 다른 특색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비빔밥이 전주비빔밥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몇몇 지방의 비빔밥의 다른 점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었다.

▶안동 비빔밥= 대구 헛새사밥이 유명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실제 새사음식이 아니고 가상하여 만든 것이라 헛새사밥이라 했다. 파·마늘·고추장을 쓰지 않고 간장(청장)으로 맛을 낸다. 국물은 탕국을 쓴다. 산적을 곁들이는 것이 특징이다.

▶전주 비빔밥= 화반(花飯)이라 하는데 콩나물 대신 숙주나물을 쓰며 해초나물과 해물 보양국을 한 국자 넣고 소고기 생육회를 듬뿍 얹어 낸다. 국물은 선지국을 쓴다.

▶해주 비빔밥= 해동죽지(海東竹枝)에 시로써 소개하고 있다. 교반(交飯)이라고 해서 유명했다. 황해도에서 전지는 김치를 말하는 것으로 겨울철 김장김치를 잘게 썰어 술에 기름을 두르고 퍼놓은 다음 쌀을 얹혀 밥을 지어 양념간장에 비벼 먹었다.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거나 연하고 살찐 콩나물과 함께 넣었다. 국물은 무국을 쓴다.

▶전주 비빔밥= 밥을 지을 때 소맥 옥수를 쓰고 뜬을 들일 때 콩나물을 넣어 콩나물밥을 지어 갖은 나물로 색스럽게 담아내고 황포묵과 육회, 오실파로 맛을 냈다. 결

들이는 국물로는 콩나물국을 쓰고 순창 지역의 참쌀고추장으로 맛을 낸다.

필자가 실제로 먹은 전주 비빔밥의 고기는 육회로 들어가고 황포묵이 별미다. 잣과 은행, 밤 등 일반 비빔밥에서는 보기 힘든 오실파로 맛을 낸다.

순창 고추장도 필수다. 계란은 노른자만 날로 넣는다. 익힌 계란 후라이가 덮인 비빔밥은 전주비빔밥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 고장의 비빔밥들 중에서도 전주의 것이 대표적인 비빔밥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워낙 풍부한 재료로 정성을 들이는 전주 지방 음식의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이 그럴 듯하다.

다양한 재료들이 좀 사치스럽기도 하다. 밥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특별한 방법을 썼다고 한다.

'전주에는 가깝게 김제 만경의 광대한 평야지대가 있어 양질의 쌀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어 쌀을 중심으로 한 음식 사치가 가능하였다. 밥을 지을 때 기미술에 옥수(닭이나 소머리를 고아낸 풀)를 섞어 뜬을 들이며 연하고 통통한 콩나물을 넣어 고슬하고 윤기가 자르르하게 콩나물밥을 지었다. 옥수를 넣어 밥을 짓는 이유는 밥알이 서로 달라붙지 않고 밥이 식었을 때 딱딱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비빔밥을 비빔 때 밥알이 으깨지지 않고 맛도 구수하며 나물 위주의 비빔밥의 영양을 보충하려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었다.' \*\*\*



다. 글을 잘 쓸 수 있으면 논리 속에 그렇게 꼭꼭 흔적으로 남을 것만 같아서 그렇게 한다... 요즘 가장 흥내 내고 싶은 작가는 김훈이다. 간결하면서도 명징하고 힘 있는 그의 문장을 닮고 싶다. 마음 같아선 '칼의 노래' 같은 책을 통째로 다 옮겨 적어보고 싶은데... 내가 이나마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지독한 연습의 결과다. ...좋은 글이 나오면 항상 메모하고 스크랩을 한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글도 절대로 그냥 좋아지지 않는다. 꾸준한 관심과 연습을 통해서만 실력이 는다. ...키보드를 두드린다고 모두 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글은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 말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맺는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글을 잘 쓰려면 생각에 깊이가 있어야 하고, 논리와 구성이 탄탄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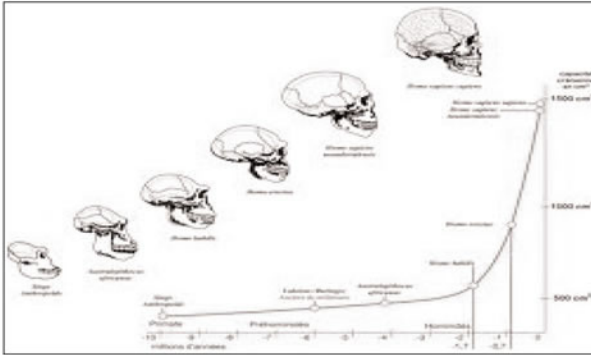
고 있는 내가 과연 김 교수 만한 노력을 했을까, 정말 창피하고 반성되는 부분이었다.

내가 이 부분을 주목하고 김 교수의 글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어 본 것은 아크로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너무나도 글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글을 못써" "나는 공대 출신이야" "글을 쓴지가 30년도 넘었어" "글? 풀 아파" "글 잘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습다. 글은 재주가 먼저가 아니고 진정성이 먼저다. 진정성이 있는 글은 아무리 초등학생 같은 필체로 쓰더라도 사람의 가슴을 때리는 법이다.

그런 글을 못썼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내 말은 많이 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글쓰기에 주저하는 수많은 동문들이여, 김남도 교수의 충언에 귀를 기울여보고 오늘날부터 시작해 보시라(그의 책에는 '당장 오늘 시작하라'는 메시지도 나온다). 감히 예상컨대 삶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 확신한다. \*\*\*



관악세대/Acro광장(인류학 킬링) <수다위에 진화

### “말없는 남자 당신은 원시인”



이상희(인문대 85)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부교수

얼마 전에 LA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동문을 위한 환송회가 있었다. 모르는 사람의 환송회라 참가하기 망설였지만, 그동안 동문회 모임에 소원했던 터라 가보기로 했다. 주눅거리면서 나타난 나를 보고 ‘오’ 전례는 무척 반가워 하면서 내 마음을 꼭 찌르는 이야기를 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꼭 고기 집에서 모임 때만 나타나는 구만!”

부안하기도 해서 열심히 고기만 집어먹고 있던 내게 ‘오’ 전례는 계속 이야기 했다.

얼마 전에 그냥 남자들끼리 모였는데 술도 별로 안마시고 얘기만 했는데도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었다고 하면서 그는 조금 계면쩍게 웃었다.

계면쩍을 수도 있겠다. 흔히 수다는 여자들의 몫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인류는 수다를 떨기 위해 진화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활짝 웃었을 것이다.

‘수다’는 우리가 언어를 쓰는 주된 목적이 큰 두뇌가 필요한 이유라고 해도 그다지 무

↑ 위 그림은 화석 인류의 두개골 크기가 점점 커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왼쪽은 화석 영장류, 그 다음부터는 화석 인류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300만년전), 호모 하빌리스(200만년전), 호모 에렉투스(100만년전),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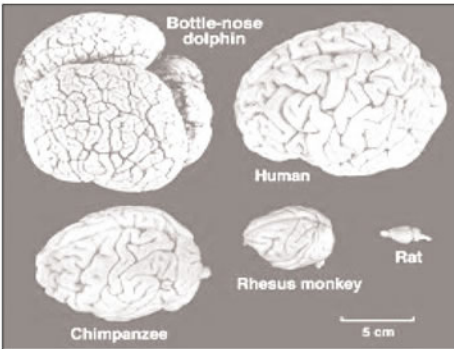
리한 과장은 아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큰 두뇌를 가지고 등장하지 않았다. 400만년 전 초기 인류의 두뇌 용량은 500cc로 추측된다. 이는 침팬지와 고릴라의 평균 두뇌 크기와 비슷하며, 현생 인류 두뇌의 3분의 1 정도 크기다. 그 두 배 크기가 된 200만년 전에는 호모 속(屬)과 함께 석기가 등장하였다. 도구 제작과 사용이 두뇌의 발달을 가져왔다는 생각은 오랜 동안 정설이었다.

그렇게 제작된 도구를 사용하여 짐승을 잡아 고기와 지방을 꾸준히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두뇌가 더더욱 커질 수 있었다. 많은 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도구의 제작과 사용, 수렵 생활, 그리고 두뇌의 발달이 인류 진화의 고차원적인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구의 제작과 사용을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인간 두뇌는 황당할 만큼, 불필요할 만큼 크다. 한 손에 담을 수 있을 정도 크기인 인간의 두뇌는 1천 개의 개의 신경세포로 이뤄져 있으며 각 신경세포마다 몇 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돼 있다. 두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결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불과 1mm의 작은 용량 안에도 6억 개의 신경세포 연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인간의 두뇌는 그 크기가 절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두뇌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결정을 행하는 대뇌 피질이 유난히 크다.

이토록 뛰어난 인간의 두뇌와 다른 포유류 두뇌의 비교.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돌고래, 인간, 쥐, 원숭이, 침팬지.



미주 동창회에서는 모교에서 시행 중인 재학생의 여름방학을 이용한 미 대학의 계절학기 수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동양사학과에 재학 중인 이희경 동문이 모교에서 선점돼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수강하게 됐다. 이에 대한 이 동문의 각오와 소감을 동창회보에 게재한다.

### 슈펜에서의 뜨거운 여름을 꿈꾸며



이희경(모교 동양사 3년)

안녕하세요. 동양사학과 3학년생 이희경입니다.

저는 모교에서 시행 중인 미국 대학 계절수강 프로그램에 이번 여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6주간 여름학기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 입학 허가를 받고 매우 기뻐했는데, 모교 미주 동창회에서 많은 지원금까지 제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전공인 동양사학은 중국·일본·중앙아시아·동남 및 서남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과

목입니다. 모교에서는 특히 학부 기간 동안 사료 원문을 해독해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따라서 한문·중국어·일본어 등에 대한 어학 실력이 요구되고 평소 많은 양의 강독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역사와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전공을 결정하게 됐는데, 미국·유럽에서는 아시아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방학 기간에는 학교 프로그램들을 통해 외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는데 미국 최고의 명문대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슈펜에서 제가 목표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연구를 배우는 것입니다. 모교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사

를 다듬어 줄 수 없게 됐다.

대신 말로 하게 됐다. 직접 털어 다듬는 일은 한 번에 한 명에게만 할 수 있다. 반면에 말로 하면 한 번에 여러 명에게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말로 때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언어의 발달이 수다에서 비롯됐다면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일일이 털어 다듬어 주기에 벽할 정도로 집단의 크기가 커야 한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구’와 ‘여기’를 벗어난 이야기를 나누려면 풍부한 상상력과 추상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큰 두뇌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시기는 동굴벽화가 왕성하게 그려지고 지역마다 다양한 양식이 나타나는 유럽의 후기 구석기 시대다.

수다 떨기가 사회적 관계의 윤곽을 그리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돈으로 벌인 계곡에서 살살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결과를 동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다의 주제는 누가 이야기를 가졌더라, 누가 누구랑 요즘 같이 다니더라, 내가 요즘 눈이 잘 안 보인다 종류의 일상생활이다.

수다는 논으로 하는 털 다듬기라는 이야기가 있다. 대부분의 영장류는 서로의 털을 만져주고 이물질을 떼어주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나보다 지위가 높은 원숭이를 만나면 먼저 털을 다듬어 주면서 내가 그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한다. 그러나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서 모두에게 일일이 직접 털

위주로 공부했는데 이번 여름 슈펜에서 중동지역의 근대사를 처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교에서도 중동사 수업이 적지않게 개설돼 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돌아와 과 수업을 들으면 중동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연구 관점을 비교해볼 수 있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TPCS IN INT'L RELATIONS: Global Think Tanks, Policy Networks and Governance’ 라는 수업을 통해 제가 그동안 막연히 관심을 가져왔던 국제관계 과목을 실제로 공부해보고 싶고 제2 전공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명문으로 손꼽히는 슈펜의 수업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슈펜이 위치한 필라델피아를 둘러볼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좋습니다.

그동안 뉴욕·보스턴·시카고 등지는 여행한 경험이 있지만 필라델피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로그램 기간 중 틈틈이 미국의 초기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기념관·박물관 등을 방문해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슈펜에서의 연수를 밟고 지원해주신 만큼 지도 공부나 생활 면에서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 다듬어 줄 수 없게 됐다. 대신 말로 하게 됐다. 직접 털어 다듬는 일은 한 번에 한 명에게만 할 수 있다. 반면에 말로 하면 한 번에 여러 명에게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말로 때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언어의 발달이 수다에서 비롯됐다면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일일이 털어 다듬어 주기에 벽할 정도로 집단의 크기가 커야 한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구’와 ‘여기’를 벗어난 이야기를 나누려면 풍부한 상상력과 추상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큰 두뇌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시기는 동굴벽화가 왕성하게 그려지고 지역마다 다양한 양식이 나타나는 유럽의 후기 구석기 시대다.

수다 떨기가 사회적 관계의 윤곽을 그리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돈으로 벌인 계곡에서 살살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결과를 동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다의 주제는 누가 이야기를 가졌더라, 누가 누구랑 요즘 같이 다니더라, 내가 요즘 눈이 잘 안 보인다 종류의 일상생활이다.

수다는 논으로 하는 털 다듬기라는 이야기가 있다. 대부분의 영장류는 서로의 털을 만져주고 이물질을 떼어주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나보다 지위가 높은 원숭이를 만나면 먼저 털을 다듬어 주면서 내가 그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한다. 그러나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서 모두에게 일일이 직접 털

법정일화<10> 불의필패(不義必敗) <마지막 화>

“돈 앞의 이전투구, 결국 공멸”



박준창(인문대 79) 변호사

지난 번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정의가 철저히 승리한 사건을 얘기 해 볼까 합니다.

▶계약위반= 제가 다루는 사건을 가지고 정의니 불의니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습니다. 보통 다루는 사건들이 상법 사건들이라 대부분 무미건조하고, 경제적 이익이 분쟁의 원인이니, 누가 옳고 그르다는 잣대의 적용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까.

한 예로, 계약 위반을 해서 손해 배상을 해 주고도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계약 위반을 마다 할 필요가 없죠. 계약 위반을 당한 측에서 손해가 없고 계약 위반을 한 측에서는 더 큰 이익이 있느냐요. 그러니 도덕적 잣대로 다루랄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사건 하나만큼은 선과 악, 정의 불의의 대결로 규정되고 싶습니다.

▶어떤 할머니의 재혼=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하고 오래 독신으로 지내다가 미국으로 건너 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심성이 너무나 곱고 경유가 발달서 남에게 빼 끼치는 일은 손뼉만으로도 못하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이미 65세를 넘었고, 영이 한 마디 못하고 배운 것도 없으니(초등학교 중), 할 수 있는 일이 어린이 봐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를 봐 주다가 그 집 사람의 소개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고 재혼을 합니다.(할아버지도 재혼).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깨끗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신체와 정신 모두 멀쩡한 데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척 소생의 딸의 이름으로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이 가게를 소유하지 못하게 했으니, 이 딸은 이미 또 다른 식료품 가게를 가지고 있었고 2개 가게를 계속 소유하게 되면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이용한 편법=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할머니 명의로 가게 이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가게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쉴 틈없이, 청소, 상품 정리, 할아버지 밥 해 먹이기, 할아버지따라 물건 사오기 등의 일만 죽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급여는 물론 없었고, 고작 월 \$300 현금 생활비가 할머니에게 주어지는 돈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와 딸은 영문으로 된 서류를 디밀면서 명의 이전 서류인데 그냥 서명하라고, 할머니는 책임 질 일도 없고, 아무 것도 바뀌는 것도 없고 그저 명목만 할머니 앞으로 옮겨 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류는 할머니가 \$40,000을 주고 딸로부터 가게를 매입하는 가게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서류상 주인을 바꿨는데 물론 이전과 이후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는 매일 같은 일을 했고, 모든 가게 운영은 할아버지가 했으며 모든 이익은 해 왔던 것처럼 할아버지나 딸이 다 챙겼지요. 가게 은행 구좌는 가게 주소로 되어 있어 딸이나 할아버지만 다 챙기는 바람에 할머니는 구좌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Statement 한 장 못 받아 보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할머니=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가게에서 밀수 담배를 팔고 있었고, WIC 라고 가난한 아이 딸린 할머니 가장(家長)들에게 제공하는 Food stamp program이 있었는데 이를 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수사관들이 들어 다쳤고, 주인인 할머니는 형사 법정에서 서게 됩니다.

할머니는 형사 법정에서 사실을 다 얘기하였지만, 판사와 검사의 동정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상 주인공인 관계로 집행 유예, 보호 관할, 그리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벌금을 무는 유죄를 언도받게 됩니다. 이리하여 할머니는 시민권 취득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되고 전과자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한국으로 도망가라 협박= 그런데 이 과정에서 딸과 할아버지는 비행기 값 대어 줄테니 한국으로 도망가라고 속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분노해서 거절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생활비나 위로금 한 푼 없이 도망가라 되라고? 변호사 선임해 주고 형사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진실을 얘기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 자기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심과 정의가 없는 딸과 할아버지 이 두 사람은 할머니의 망가진 인생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가계에 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다시 가게 명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빈 손으로 내쫓기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이 할

아버지가 전화를 할머니에게 집어 던지며, 할머니가 쓰던 전화를 끊어 버렸으며, 제시한 살인 청부 업자를 사서 죽여 버린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혼소송= 그래도 딸을 안 들으니 마침내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마침 이 할머니의 친척분이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한 사건의 의뢰인이자 이분 추천으로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게 매매 계약에 의하여 가게를 넘겨주었으나 구매자인 할머니가 매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 소유권만 행사하고 있으니 매매대금을 지불해 주도록 하고 가게 주인은 딸이라는 것으로 판결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맞고소로 대응= 저는 딸과 할아버지를 상대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맞고소를 했지만 기본적인 두 가지는, '임금 미지불과 금전적 노인 학대(Financial elder abuse)' 였습니다.

'이자피 속아서 서명한 계약이니 계약서는 무효이고 그렇다면 할머니는 주인 아닌 근로자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한 푼도 임금이러라고는 지불 받을 적이 없으니 임금을 지불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계약이 유효하다면 할머니가 정식 가게 주인이니 매입 대금을 지불하겠다. 하지만 가게 주인에게서 이익금을 착복했으니 이는 횡령일 뿐만 아니라 65세가 넘는 노인을 금전적으로 학대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눈물겨운 변호사비= 그런데 수입도 없는 할머니가 어떻게 착수금과 시간 들이건 변호사비를 일부이긴 하지만 제게 주는지 공급했습니다.

물어 보았더니 다 꾸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변호사비는 나중에 계산하고 끝날 때까지 변호사비 청구는 앞졌고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저하고 면담이 있을 때마다 \$100씩 가져다 주었는데 할머니에게는 너무 큰 돈임이든 편히 알기로 거절을 해도 그냥 먼저 놓고 갔습니다.

재판이 다가 왔습니다. 그 사이 딸은 일 안 하는 자신의 변호사를 바꾸었는데 개악(改惡)이었습니다. 전혀 재판 경험이 없는 젊은 중등계 변호사였는데 이 친구 한 일이라고는 무려 다섯번이나 긴급으로 판사에게 가서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녀지간에 고발= 그런데 재판 연기 이유는, 이 할아버지가 그 사이에 불법 체류로 이민국에 체포가 되어 재판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십년간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체포됐을까요?

딸이 고발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딸과 이 할아버지가 그 사이에 또 슬집을 인수하여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소유권을 둘러 싸고 딸과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딸은 아버지를 상대로 슬집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내었고

분노한 딸의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접근, 이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줄테니 이기면 배상금을 자기와 나눠 갖도록 으름으로 내가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 딸을 상대로 슬집을 자기에게 되찾게 해 달라는 제의를 할머니에게 했습니다. 가히 적과의 동침이네요. 딸도 안되는 소리라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상대 변호사는 재판 연기 신청을 그런 이유로 하겠는데 당연히 헛자 맞을 것으로 예상한 저는 아예 반대하러 법정에서 나가기도 않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5번에 걸친 신청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매번 거부, 재판은 예정대로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딸이 가끔 일을 시켰던 거리의 에이즈 환자를 하나 데려다 할머니가 가게 수입을 다 챙겨갔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제 반대 심문 때 "당신은 가게 몇 번 들렀을 뿐이고, 딸과 친한 사이이고, 변변한 직업도 없지? 돈만 주면 뭐든 다 하겠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일부러 던졌는데 물론 자기를 어떻게 보냐고 반발하더군요. 하지만 짜고 하는 증언임을 간파한 판사는 대답이 편지 알면서도 상대 변호사의 반발을 무시하고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사실을 고백= 그리고, 딸은 "아버지에게 가게를 주고 싶었는데 정부보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 할머니 명의로 했다"고 태연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 후 판사는 잠시 증언을 중단시킨 다음, 상대방 변호사에게 "목비권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과 목비권에 대해 상의하라"고 복도로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과 아버지의 그러한 행위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한 마디로 범죄였고 딸은 그러한 범죄 행위를 스텔링없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재판은 끝이 났는데, 판사는 딸이 제기한 고소장에 대해서는 피고(할머니)소송, 원고(딸) 폐소, 할머니가 딸과 할아버지를 상대로 한 맞고소장에 대해서는 반소 원고(할머니)소송, 반소 피고(딸과 할아버지) 폐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해 배상액은 제 청구한 액수 약 \$70,000에 \$50,000을 더한 \$120,000을 최종 손해 배상액으로 확정했습니다.

▶예상을 크게 넘는 보상= 그런데 \$120,000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큰 액수라 즐거운 놀라움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시간당 최소 임금액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시간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였고, 노인 학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액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손해 배상액으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다분히 징벌적인 요소가 강한 손해 배상액이었지요. 그러면서 판사는 마지막으로써, 자신은 "연방 검찰에게 딸과 할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통지할 것이며, 오늘 재판 속기록도 연방 검찰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돈 앞에선 딸도, 아버지도 없는 인륜수심의 인간 군상들. 아버지를 고발하고, 딸을 박살내고, 아내를 속이고 범죄자로 만드는, 인륜도, 정의도, 인정도 없는 악의 무리에 대한 통렬한 정의가 행하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영악한 변호사 농담 하나>

어느 어둡고 추운 겨울 밤 자동차 사고가 났다. 사고 운전자 중 한 사람은 의사였고 한 사람은 변호사였다. 누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몰라 두 사람은 경찰을 불러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추위가 떨고 있는데 변호사가 의사에게 말했다. "차 트렁크에 위스키가 한 병 있는데 한 잔씩 마시면서 추위를 좀 녹혀요."

좋은 생각이라 의사는 취기가 올라 올 때까지 몇 잔을 받아 마셨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는 안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사가 말했다.

"당신도 좀 드시지 그러세요?" 변호사가 씩 웃으며 하는 말: "저는 경찰이 온 다음에 마시겠습니다."

<저자의 말> 법정일화로 동문들을 대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딱 10편을 썼는데, 글쓰고 삽화 그리는 동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첫 회 분 말미에 삽화를 넣은 게기로 주말 화가가 됐고, 미주 동창회보에 시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편지지 않은 글과 삽화를 사랑해 주시고 보아 주신 편집진과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림= 박준창 화백





시국 칼럼

# 세뇌(Brain Washing)시대



지종근(농대 56)

절대자 신(GOD)에게 도전과 복종을 반복하며 인류의 역사와 현대문명을 이룩한 것이 인간이지만 또 하나의 지배자인 뇌를 지배 조종하는 뇌(Brain)의 신비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 생명체 속에 뇌를 지배하는 자는 누구인가?  
뇌는 출생시 약 400g의 무게가 되는 두뇌가 뇌세포 성장이 중지되는 17세에는 약 1,400gr의 무게를 가진 두뇌로, 1천억의 뉴런(Newron)이란 기본세포에 1,000조의 시냅스(Synapse)에 의해 연결된 중추신경세포로 1

초에 1만번의 전기신호와 이 세포 사이에 수백종류의 아미노산으로 형성되는 호르몬이 말초신경까지 생성 전달해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신의 모습과, 신과 같이 호흡하는 생명체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같다.  
현대인은 각종 과학문명의 기기(利器)에 의해 상상을 초월한 편의와 많은 정보를 받지만 반면 알게 모르게 각종 광고 선전홍수, 조작 언론, 단편적이고 선정적 SNS 선동에 의한 세뇌에 의해 무의식 속에 자아가 상실돼가고 있는 것 같다.  
세뇌공작이란 과거 조지 오웰의 의해 쓰여진 '동물농장' '1984년' 과 같은 소설이 현실화된 북한 독재정권이 폐쇄된 사회를 조성하여 식량 배급제도와 반복되는 교습으로 북한주민을 세뇌시켜 절대 3세대 김씨 왕권을 유지하는 북한의 전유물인 것 같다.  
자유세계와 대한민국 국민도 무한히 누리는 자유 속에서 특정인의 이익이나 사상, 정치적

적에 의해 만들어진 TV 프로그램·인터넷·SNS·영상게임에 각종 엔터테인먼트 등이 TV·스마트폰·컴퓨터·아이패드·타블렛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현대문명의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허상인 영상에 나타난 드라마·뉴스·각종 엔터테인먼트·게임에 중독되고 각종 선전물에 노예화되어 자인 속에 창조주 신이 부여한 인간의 존엄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타인의 세뇌공작에 의해 대중에 파묻혀 서서히 퇴화되어 가는 것 같다.  
러시아의 혁명자 레닌은 “거짓말은 혁명의 강력한 수단이며 100번 하던 참말이 된다”며 세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세뇌란 개인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새로운 사상과 교리로 받아들여도록 설득하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그 핵심은 진실을 조작하여 거짓과 의문을 끊임 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사이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권력의 뜻을 가진 '포털(portal)' 이 제국과 식민지라는 두 체제에서 제국이 됐다. 한국의 독보적 포털인 네이버는 주간 2,500만 명이

새로운 정보와 놀기(게임·음악 등)를 위해 문을 두들겨 습관적 클릭으로 중독되어 클릭 노예화 되고, 포털 제국은 권력으로 자리잡아 시장을 장악하고 정보를 지배해 가고 있다.  
저서 '구글의 배신 (Googlization of everything: 시바 바이디야나단 작)에 의하면 '디지털 지옥으로 변질된 오늘의 세계에서 당신의 뇌를 점령한 구글은 인류의 문화적 과학적 자원들의 관리자로서 등장할 것인데, 일개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정상일까' 라고 한 저자의 경고는 명쾌한 것으로 '지금 세상에서 당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단지 구글화되어 버린 대상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다.  
현대 인류는 첨단과학의 산물로 과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편의와 재미로 세상 살 맛나는 것 같아 됐다. 그러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뇌는 계산기의 등장으로 합산과 빼기, 구구단도 못 외우는 바보가 돼가고, 집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바보가 되며 사색과 추리가 없어 어처구니 없는 선동인 대중에 휩싸이는 SNS의 도구로 전략해가지 않는가 우려된다.  
현대인들은 제2의 바벨탑을 쌓아 신에게 도전함으로써, 소수

의 천재적 인간들이 만든 과학문명의 이기로 보통 인간들은 클릭 하나로, 말 한 마디로 모든 정보를 얻어 그 편의성으로 인해 지상천국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인류는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인간 조직체에 의해 과학문명의 노예화가 돼가는 것 같다.  
천재지변과 인류의 끝없는 야욕과 파소비의 폐기물로 아름다운 이 지상이 황폐화 돼 가는 것 이상, 이 지상에 꼭 차버리는 수없이 많은 허상인 영상에서 인간 발전에 유익한 것만을 선택하는 지혜로, 쓰레기 같은 허상에서 탈피하고 뇌가 자연 본연의 기능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할 때가 된 것 같다.  
선(善)을 향한 절대자 신(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재의 난관이 미래에 희망을 낳는 산고로 여겨져, 아침에 떠오른 밝은 태양을 바라보며 삶의 의의인 긴 호흡을 하여 생의 참 뜻을 음미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황폐해가는 것 같지만 아직, 아니 미래도 다수의 선한 인간이 악한 인간보다 훨씬 많고, 신의 인간사랑과 노력하는 선한 인간에 의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 믿고 싶다.\*\*\*

문화 칼럼

## 워싱턴의 오안 미로 순회전<상>



이연행(문리대 68)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스페인 최대의 현대 화가인 호안 미로(1893-1983)의 특별 전시회가 유럽과 미국에서 순회 전시되고 있다.  
그의 고향인 바르셀로나의 '호안 미로 재단' 이 2011년 10월-2012년 3월,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2011년 4월- 9월 이 미로 특별전을 성황리에 개최했고, 미국에서도 워싱턴의 '국립 예술 화랑' 에서 이번 2012년 5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 순회전에서는 150여 점의 유화·수채화·판화들이 다시 공개되었고, 그의 긴 화가의 경력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 전시회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바르셀로나 '호안 미로 재단' 의 큐레이터들이 기획했고, 제목은 '호안 미로 : 도피의 사다리' 로 그가 1926년 그린 유화 <달밤에 짓는 개> 에서부터 자주 사용한 사다리의 주제를 다루었다. 1940년부터 그가 구아슈 수채화 <도피의 사다리> 라는 작품이 전시되고, 이 제목을 그대로 전시회의 제목으로 제시했다.  
이 화가는 사다리라는 상징을 통해서, 가혹한 사회적 현실에서

부터 예술 세계로 도피하려고 했고, 1920년대부터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1939-1975)에 저항한 노력을 그림으로 승화시켰다.  
이번 전시회는 그의 대표적 걸작인 <농장>(1921-22), <카탈루냐 풍경>(1923-24), <빈신>(1936), <신발이 있는 정물>(1937), <별이 흑인 여자의 가슴에 키스하다>(1938), <도피의 사다리>(1940), <성좌> 연작(1940), <류양지 불라우>1, 2, 3(1961), <불에 탄 텔레비전>(1973) 등이 전시돼, 다시 한 번 그의 전생애의 작품들 경향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많은 관람객들의 찬탄과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언제나 별, 소용돌이 치는 함성, 달·태양·동물들, 어린이 같은 괴물들, 검은 점들, 기하학적인 단순하고 기묘한 형상들이 가장 강렬하고 밝은 원색의 색채로 그려져 있다. 일찍부터 순수하고 아름다운, 전혀 새로운 현대적 형상과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창조하여, 피카소와 같이 현대 서양 미술의 새 장을 열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3년에 그의 탄생 100 주년을 기념해서, 뉴욕의 현대 미술관(MOMA)에서 대규모의 회고전을 개최했고, 그 이후에는 처음으로 이 순회전이 워싱턴에서 열린 것이다.  
그는 85회 생일, 'LA Times' 와 'NY Times' 에 발표한 인터뷰에서, "나는 정상적인 시민처럼 살고 있다" 며, "그러나 카탈로나 지방의 격언이 말하듯, 당신의 내부에서만 퍼레이드는 행진한다. 즉 무엇이 일어나는 것은 내부의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그가 평생동안 스페인의 중앙집권적 독재체제에 대항하

## "그렇지, 몸을 움직여야지"



신복레(문리 83) 미주 중앙일보 기자

아들내미와 팜삼머리에서 나누기에는 좀 무거운 대화였다.  
그날 배탈된 성적표를 놓고 C(마이너스)를 맞은 수학을 어쩔거나 따지고 있는데 아들이 느닷없이 던진 질문.  
"엄마,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가 뭐야?"  
잠시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임기응변으로 생각해낸 것이 "재영이 너지. 너를 아들로 갖게 된 것이 엄마는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워."  
수학 얘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레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성취가 뭐가 헤아려보기 시작했다. 옛날 한 때 잘 나갈 때는 이것도 저것도 내세울만해 보였는데 돌아보니 아무 것도 아니었다. 말없이 밥을 먹는데 위기에 서 멧돼지를 잡지한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의 잔머리에 못을 박는다.  
"나 말고 엄마 인생 자체에서  
여, 그의 고향인 카탈루냐 지방의 자치와 문화를 지켜 온 것이 그의 내부적인 예술 세계의 작품들이라는 표현이다. 즉, 오직 예술 창작으로 내면 세계를 구축하고 현대적 양식을 개척한 그의 모든 진실을 말한 것이다.

자부심을 가질만한 거는?"  
신문사 선배가 있다. 한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십수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지금은 존경하는 사람이 됐다. 그가 얼마 전 서울 중앙일보 뉴스에 나왔다. 중국의 7대 고도를 연결한 4200km를 자전거로 여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를 존경하게 된 것은 2005년 그가 자전거로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쓴 여행기를 읽고부터다. 미국 동쪽 끝 버지니아주 요크타운에서 서쪽 끝 오리건주 폴로렌스까지 6,400km 길은 80일에 걸쳐 자전거로 횡단하며 쓴 여행기에는 삶에 대한 주옥같은 깨달음이 생생하고 유쾌하게 담겨 있었다. 담 한방울 흘리지 않은 무임승차였지만 글로 그와 동행하면서 로키산맥도 넘고 천만 년 역사의 화석지대에 누워 우주에서 티끌같은 인간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육신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도 반성했었다.  
그후 그를 잊고 살았는데 중국을 자전거로 여행한다니. 기사내용은 이랬다. 씬 살이 다 된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부사장직을 그만두고 다시 길을 떠난다고. 21세기의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그 나라를 제대로 는

겨보고 싶어서 간다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은 그대로 전한다.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비싼 여행을 하는 셈이다. 그게 가격으로 환산하면 그렇다. 그러나 가치로 환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인생은 한 번 살면 돌이킬 수 없다. 재미있거나 진하게 살 수 없다는 느낌과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돈으로 따지면 안된다. 나중에 대한 걱정? 왜 없겠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4200km를 걸고 돌아오는 여행에서 뭔가 하는게 성취감이 더 크다.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날 던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려한다."  
그의 성취의 출발은 10여년 전 미 유학시절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데서 시작했다. 동네 한바퀴가 10km 마라톤 하프코스 풀코스가 되고 미 대륙횡단 자전거여행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그의 삶은 의무감이 아니라 진하고 재미있게 누리고 도전하며 사는 인생이 됐다고 한다.  
몸을 쓰지 않고 머리만 사는 삶,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삶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남의 땅방울은 아무리 정성껏 들여다봐도 내 것이 되진 않는다. 할줄했지만 하루만 더, 하루만 더 몸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정신으로도 이겨내지 못한다.  
아름다 기다려라. 이제 수학애기 너는 안하러다. 대신 자연 속을 달려보자. 너도 나도 육체적인 도전과 성취가 먼저 필요한 것 같다.\*\*\*<Acropolistimes>

이 작품들로 그는 1918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리고 1920년에 파리에 와서 정착하고, 많은 예술가들과 작가들을 만나, '다다'의 회원으로 가입했고,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로 활약했다.\*\*\*

등문등정(미주 중앙일보·한국일보 인용)



윤숙경 동문 지도 '유스 엔 게디' 대상

“찬양 달란트에 겸손과 배려를 심어주려 노력” 국제 청소년찬양콩쿨 가주 본선서 대상 쾌거

윤숙경(레베카 윤) 동문이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 현악 앙상블 '유스 엔 게디(Youth En Geidi)' 단원들이 지난 4월 열린 '2012년 INPASS(International New Praise Academic Support Society)국제 청소년 찬양콩쿨' 캘리포니아 본선에서 대상을 휩쓴 쾌거를 올렸다.

에드리아 리아오 양이 대상을 수상, 5월 20일 카네기 홀에서 워너스 콘서트를 가졌다. 매년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온 이 앙상블은 사실은 화려한 성적보다도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신실함이 훨씬 더 화제가 되어온 팀이다. 윤숙경 동문은 지난 2005년 창단시점부터 디렉터로 이 앙상블을 지도해오고 있다.



이후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거쳐 시카고 지역에서 연주자로, 그리고 교수로 바쁘게 활동하던 윤 동문은 화려한 경력만큼

←사진은 유스 엔 게디 앙상블 단원들(왼쪽)과 레베카 윤 동문.

년들을 위한 '유스 엔 게디'도 창단했다. 2005년 자녀의 진학문제로 샌디에이고로 이주해 온 직후 이곳에서도 '유스 엔 게디'를 구성했고 1년 후 국제찬양대회에 출전해 대상을 받아 카네기 홀 공연을 하면서부터 지역내에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최고의 음대를 나와 연주자의 길을 걸었던 윤 동문은 당연히 음악적으로 훌륭한 교사였겠지만 막상 앙상블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가 전하는 소감은 음악적인 것 이상이다. 고교 시절 엔게디 활동을 했던 전다운(프린스턴대) 양은 "하나님께서 세계 주신 소중한 능력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기회였다. 우리는 서로 믿고 증거하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학부모 이정희씨도 "단원들이 형제 자매처럼 잘 챙기고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면 눈물이 뿜돈다"고 감격해 했다. 이에 윤 동문은 "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환경을 즐긴 게 전부일 뿐"이라며 "청소년들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는 다음 각자의 역할과 재능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조언한다.\*\*\*

인영집 재외동포영사국장 기사간담회

해외동포 지원업무 총괄하는 본국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으로 올해 임명된 인영집 동문이 지난 5월 11일 시애틀을 방문,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정부는 해외 동포들이 현지에서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주지역 총영사관 회의 참석후 시애틀을 찾았다는 안 국장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20만 해외동포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국가자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국가 자산들이 한국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현지 사회에서 성공하고 글로벌 인재로 커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교육은 '크고도 강한 모국'이 돼 단단한 버팀목과 디딤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안 국장은 이같은 해외동포 정책 방향에 따라 한인 2세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한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인 후세대들이 미국인의 신분으로 주미대사관에 이처럼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어와 문화를 포함해 전반적인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을 둘 다 잘 알고 있는 등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국장은 특히 미국내 총영사관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한미FTA 활용 방안, 한인 차세대 단합 지원,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 K팝이나 한식세계화 등 한국문화에 솔 홍보 등이라고 소개했다. 모교 외교학과 출신으로 외신 21기인 안 국장은 "시애틀 방문이 처음인데 마치 옛날 좋았던 미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힘들지만 동포 여러분들께서 용기와 힘을 잃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수 동문 LA 법무영사 부임

동문 김철수 검사가 LA 총영사관의 신입 법무영사로 새로 부임했다. 김철수 검사는 강릉지청 부장검사 출신이며 심우경 전 법무영사 후임으로 부임한 것이다. 김철수 신입 법무영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영사관 관할지역 한인들에게 한국 법률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미국 사법 당국과 형사 사법공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올해 12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도 제공하게 된다. 김 법무영사는 모교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이현림 송란 동문 '노보 코랄레' 창단

"새로움으로 행복한 음악적 만남을 우리 동포 커뮤니티와 나누고 싶다"는 취지로 설립. '새로움이 있는 합창단'으로 지휘자는 이명근씨. 서울예고와 모교 음대 동창인 피아니스트 이현림(49) 동문과 성악가 송란(49) 동문이 의기투합해 새로운 콘서트 모임 '노보 코랄레(Novo Chorale)'를 창단했다. 이 모임은 "새로움으로 행복한 음악적 만남을 우리 동포 커뮤니티와 나누고 싶다"는 바람과 같이 새롭고 다양함을 추구하는 우리 동포 합창단 모임이다. 지난 3월 20일 첫 모임을 갖고 소리 맞추기에 들어간 '노보 코랄레(Novo Chorale)'는 라틴어가 지닌 뜻 그대로 '새로움이 있는 합창단'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우선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갈 지휘자 이명근(35)씨가 '뉴 페이스'다. 독일에서 남가주로 생활터전을 옮긴 지 3개월 된 신예 지휘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정치용 교수와 금난새를 사사했고 독일 테트폴트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지휘콩쿠르 2위 입상, 부천시립교향악단 젊은 지휘자 오디션 우승에 빛나는 이명근씨의 열정은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합창단원들에게 화음을 맞추는 작업을 즐겁게 만든다. 합창단 이사장 겸 반주를 맡은 이현림 동문은 "교회 성가대에 부임한 이명근 지휘자를 보고 평장히 순수하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음악적 스타일도 상당히 깔끔해 이 지휘자와 함께라면 행복을 주는 합창단을 만들 수 있다는 열정이 솟았다"고 말했다.

←합창을 통해 건강한 문화와 정서, 교양의 발전을 기대하는 한인 혼성 합창단 '노보 코랄레'. 왼쪽부터 이현림 이사장, 이명근 지휘자, 송란 단장. 이현림 동문은 평소 음악적 교류를 해오던 줄리아드 음대 출신의 성악가 송란 동문을 찾았고 새로운 합창단을 만들어보자는데 뜻을 모았다. '노보 코랄레'의 목표는 단원들 스스로가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는 것, 그리고 수준 높은 짜임새 있는 음악회를 통해 지역의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 동문은 "지휘는 물론이고 작곡도, 노래도 잘한다는 이명근 지휘자의 명성을 소문으로 들은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모여 들어 벌써 25명이 정기적으로 연습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이어 "영국 작곡가 존 루터의 현대음악 '글로리아'를 합창하고 있는데 신선하고 깊이도 느껴져 충분한 연습을 거쳐 정기 연주회에 선보이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명근 지휘자가 이끄는 혼성 합창단 '노보 코랄레'의 단원이 되려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필수다. 전문적인 보컬 트레이닝과 세미나, 강의, 실제 지휘자와의 앙상블 연습이 있기에 열정과 사랑을 통해 실력은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연습 시간과 장소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오렌지 힐 교회(681 Rancho Santiago, Orange)이다. 문의 (714)319-6886 \*\*\*

### NIH 김희용 박사 모교서 언론 인터뷰

‘모교 약대 여자 동기 중 골짜기’ 하지만 지금은 미국 NIH 수석연구원이자 세포신호 연구실장



“외국인 여성으로 미국에서 살면서 유리천장이 높았지만 스스로 약점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미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국립보건원) 수석연구원이자 세포신호연구실장인 김희용(57·사진) 박사가 대한약학회 초청으로 고국을 방문 후 귀국했다.

김희용 박사는 4월 27일 모교인 서울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박사는 2001년 ‘오메가3’ 성분이 뇌세포 작용을 돕는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규명해 전 세계적인 ‘오메가3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NIH 역사상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종신제직권(테뉴어)을 받았다.

모교 약대와 대학원을 나와 텍사스 휴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4년부터 NIH에서 연구를 해왔다. 지방산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부군인 강길중(61) 박사를 역시 모교 약대 출신으로 미 식품의약국(FDA)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 박사의 모교 약대 동문(74학번)인 정진호 교수(약대학장)는 “NIH에서 33년간 근무했던 이서구(69)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남성이어서, ‘국가과학자 1호’로 선정된 점에 전례를 때 50대 여성인 김 박사의 현재 NIH내 위치는 대단

히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서울대 약대 74학번으로 당시 전체 80명 중 여자 동기가 7명 뿐이었다. 그 중에서 내가 공부를 가장 못했다. 다른 동기들은 졸업할 때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고 학점도 좋았던 데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보충수업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모교의 약대학원에 진학했다. 거기서 우원식(84) 명예교수님을 만난 뒤론 공부에 흥미가 생겼다.”

- 공부하면서 결혼을 해 결혼 생활과 연구생활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었다.

“같은 과 섰었던 남편과 결

혼하면서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지금도 그 때 동기들과 만나곤 하는데 여자 동기들은 거의 대부분 살림하는 전업주부가 됐더라. 우리시대가 그랬다.”

- 미국에서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다.

“나에게는 세 가지 약점이 있었다. 키가 작고, 외국인이며 여성이라는 것이었다. ‘유리천장’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성별이나 인종 등 이유로 승진을 못하는 상황)이 높았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힘든 상황이 오히려 더욱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러면서 예상 외의 성과를 내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당시 ‘결혼하면 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고도, 연구 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지금의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약학 연구로 당장 신약이 나오는 건 아니다. 메커니즘, 작용기전 등 기초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신약도 개발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오메가3의 유효성분이 신경제도에 작용하는 원리를 알아낸 만큼 이를 다른 영양소와 어떻게 합성하고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



### 김윤진·정동현 동문 2인전

화가 김윤진·정동현 동문은 지난 5월 12-30일 LA 리엔리 갤러리에서 2인전을 가졌다.

오랜 친구인 두 사람은 2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2인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사이 서로 더 변화하고 진화한 작품들을 소개했다.

두 작가가 모두 2년 전보다 한층 깊어지고 절제된 작업, 좀더 인내하고 침묵하며 시간과 공간, 빛과 생명을 끌어안은 작품을 보였다. 2년 전 한지에 색동채를 입혔던 정동현 동문은 이번에도 한지를 썼지만 색채와 형태는 훨씬 단순화 절제된 작품을 선보였다.

“무구한 시간을 견뎌온 것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깊은 곳을 보게 한다. 불이고 뜬고 같아내고 또 불이는 과정은 침묵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내면의 소리’라는 작업 노트에서 “녹슬고 바래져가는 것들의 아름다움, 가까이 부를 수 없는 슬픔, 물결 위로 흔들리는 슬픔 속의 아름다움이 미래의 시간들을 보여준

다”고 한다(오른쪽 그림).

정 동문은 페사디나 아트센터에서 일러스트레이션, 팬쿠버 카탈라노 칼리지에서 세라믹을 공부했으며 4회의 개인전, 42회의 그룹전을 가졌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카탈리나(왼쪽 그림)’ 연작을 선보인 김윤진동문은 오랫동안 카탈리나 섬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존재와 관계에 대해 탐구한 작업을 해왔다.

그는 “카탈리나 섬은 주변 상황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균형잡힌 모습을 보여준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자신을 내맡기는 게 좋다. 그래서 흡수되고 감싸 안으며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깊음’이며 깊음은 고통의 어두운 구렁인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고 빛을 만나는 자리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모교 미대와 대학원, 하트포드 아트스쿨에서 공부했으며 9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 ‘아라연’ 동문들 축하공연 펼쳐

버지니아에서 모교 음대 국악과 출신 동문들로 구성돼 활동 중인 ‘아라연’이 한미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 ‘코리안 벨 가든’의 완공 기념 축하 공연을 지난 5월 18-19일 활발하게 펼쳤다.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메도우락 식물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인기 4인조 여성 듀오인 국악 앙상블 ‘아라연(대표 허영훈)’과 한복 디자이너 주영숙씨가 한국서 특별 초청돼 아름다운 우리 가락과 한복의 멋을 알렸다.

‘아라연’은 국악 엘리트 코스인 국립 국악 중고등학교와 모교인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한 24-26세의 젊은 여성 동문 연주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07년 창단 이래 그동안 3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한 바 있다.

‘아라연’은 특히 지난 해 한국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청와대 국빈 만찬에서 초청 공연을 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국악 앙상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날 완공식 공연에서는 조아미·김윤지·김보슬씨가 가야금·해금·피리 등으로 산조와 정악 등 한국 전통 음악과 함께 음반에 수록돼 있는 ‘My Days’, ‘The first day’ 등

경쾌한 멜로디의 창작 음악을 선보였다.

한복 디자이너 주영숙씨는 ‘아라연’의 국악 연주에 맞춰 지극히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이미지의 창작 한복 패션 쇼를 했다.

주영숙 디자이너는 KBS 드라마 ‘해신’과 MBC 드라마 ‘신돈’과 ‘이산’의 의상 제작 참여를 비롯해 세종문화회관에서 88 올림픽 기념 복식 전시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이밖에 미주 한인노인봉사회(회장 윤희균)가 주최하는 줄다리기·웃놀이·제기 차기 등 한국 전통의 민속놀이와 궁중 혼례복 입고 사진 찍기, 세계 한식요리연구원 장재욱 원장의 한식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미문화재단 이정화 대표는 “한인동포들의 염원인 코리안 벨 가든이 드디어 완공식을 갖게 돼 감격스럽다”며 “그동안 봉사 등으로 참여해 준 분들께 다시 감사 드린다. 완공식을 계기로 주류사회에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공연 주소는 9750 Meadowlark Gardens Ct. Vienna 이다.\*\*\*



### 반기문총장 ‘2기 임기 성원의밤’ 강연

“손은 부러졌지만 행사는 부러지지 않아...” 반 총장, 원손 부상 유머

“손은 브레이크(골절)됐지만 일정과 행사는 하나도 브레이크(중단)되지 않고 있어요.”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자신의 부상마저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포장해 좌중을 웃겼다.

반기문 총장은 지난 5월 16일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2기 임기 성원의 밤’에서 김스한 원손을 보여주며 “아내는 늘 브레이크(휴식)를 가지라고 성화였지만 이런 브레이크(골절)를 의의한 건 아니었다”고 말해 참가자들을 폭소케 했다.

반 총장은 얼마 전 UN 외교단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해 원손에 김스

를 하고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만찬은 반 총장이 2기 임기 중 역점을 두고 있는 모자보건 프로젝트를 한국정부 차원에서 힘을 신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UN사무국 고위인사, 뉴욕의 주요 정치·금융·언론·문화계 인사, 차세대 한인사회 지도자 등 120여 명이 초청됐다.

지난 2010년 출범한 모자보건 프로젝트 ‘Every Woman, Every Child’는 빈곤·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개발국에서 여성과 아동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 여성·아동의 생존 환경을 최우선적인 개선 과제 삼은 것이다.

반 총장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실 때, 땀물에 벗

어놓은 고무신을 보면서 저절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다. 그러나, 한국은 반 세기만에 빈곤을 딛고 일어섰고, 30년 만에 여성 기대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기적을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뉴욕총영사관은 “사무총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모자보건 프로젝트에 대해 세계적인 기업과 시민사회 참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 기여는 미미한 실정”으로 이번 행사는 한국 기업은 물론, 미 주류사회와 언론,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만찬에서는 하나금융그룹에서 10만 달러 기부 약정서를 전달했다. 하나금융그룹에 의한 행이 자회사로 편입된 것을 계기로 하나는행과 외환은행의 공익재단인 외환 나눔재단과 하나공익재단이 공동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게 됐다.

만찬 축하로 뉴욕필하모닉 수석 부악장 바이올리니스트 미셸 김(Michelle Kim)과 음악 신동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음악 영재들에 대한 악기 지원과 멘토링을 하고 있는 미셸 김의 연주에 이어 중거리 음악 신동 심유철(11), 줄리어드 예비학교의 9세 바이올리니스트 엘리자베스의 연주가 있었다.\*\*\*



### 주용 전문의 '간호 장학금' 사업

“사랑의 빛 갖고 있어요” 4년째 간호사에게 장학금 전달

“사랑의 빛을 장학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뉴저지 홈벨 소재 베이쇼어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생명의 계단 간호 장학금(Stairs of Life Nursing Scholarship)’을 전달하고 있는 주용(71) 전문의는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장학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베이쇼어 병원장을 역임한 주

용 전문의는 담석과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생사를 오가는 위험상황에 처하면서 간호사들의 사명과 헌신을 깨달아 퇴원 후 바로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 주 전문의는 “입원 당시 가족처럼 따뜻하게 돌봐준 간호사들 덕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사랑의 빛을 갖고 있는 마음으로 한 해 한 해 장학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미 간호사 주간’을 기념

←주용(왼쪽에서 5번째) 전문의와 아내 정문자(왼쪽)씨가 올해 선발된 장학금 수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해 매년 5월 초 장학금 전달식을 가져 온 주 전문의는 올해는 2명으로 늘려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장학금 수상자는 라이언 힐 허스키 간호사와 도나 카시디 간호사로 모두 베이쇼어 병원 소속이며 현재 각각 그랜드캐년 대학과 뉴저지 시티 유니버시티에 재학 중이다. 호스스키 간호사는 2,000달러, 도나 간호사는 1,000달러의 장학금을 각각 받았다. 주 전문의와 아내 정문자씨는 “장학생을 한 명 더 늘리게 돼 기쁘다”며 “환자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는 간호사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교와 고대 의대를 나온 주 전문의는 1969년 뉴저지 만모스 메디컬 케어센터 인턴으로 도미해 비겐카운티 병원과 브리지 포트 병원, 맨하탄 벨뷰 병원 등을 거쳐 1977년부터는 베이쇼어 병원에서 33년간 근무하며 2001-02년에는 병원장

### 김진양 목사 ‘경건의 시간’ 출간

하나님께 올리는 ‘묵상과 경건의 훈련지침서’ 성경의 구절을 매달의 묵상 주제로



미국 장로교단 은퇴목사 김진양 목사가 매일 행하는 경건 훈련 지침서 ‘경건의 시간’ (쿰란 출판사)을 최근 펴냈다. 이 지침서는 신앙인 독자가 개인적으로 매일 짧은 시간인 10-15분 하나님께 올리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시로 편집돼 있다. 성경 안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추리고 그 구절들을 매달의 묵상 주제로 내용을 분류한 것이다. 신앙인 독자들이 묵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락 구절들을 월별, 날수대로 365개를 골라 삽입했다. 저자인 김진양 목사는 모교 사범대학 및 동 대학원을 나와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 예일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이 저서에 대한 문의는 [eurgenekimny@msn.com](mailto:eurgenekimny@msn.com) 을 통해서 검색해볼 수 있다.\*\*\*

을 역임했다. 또 흉곽내과와 내과 전문의로 홈벨에 진료장

### 박혜란 동문 합창단 지휘자

필리카메라합창단 창단...한인 음악인협회장 박혜란 동문 지휘

음악을 통해 한인 사회의 문화적 향상과 교류, 음악적 소양을 배양하는 기쁨과 선교활동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필리카메라 합창단 (Philly Camerata Choir)’이 창단된다. 이 합창단의 지휘자로 박혜란 동문이 발탁됐다. 카메라라는 1570년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되었던 시인·학자·예술가·음악가들의 모임으로 문학·예술·음악 등 문화의 전반적인 방향과 발전에 대해 노력했다. 특히 음악과 연극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여러 도시에 카메라타 모임이 있다. 단원 모집은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부문이며, 합창을 사랑하는 남녀 누구나 가능하다. 오디션은 6월 3일부터 시작돼 10·17·25일 갈보리 비전교회에서 오후 4-6시까지 자유곡 1곡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지휘자 박혜란 동문은 “음악을 연주하는 단원과 듣는 청중이 함께 감동과 삶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합창을 사랑하는 한인 동포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란 동문은 모교 음대 성악과와 템플대 대학원에서 합창지휘과를 졸업했다. 전 필라델피아 맨델스존 클럽의 부지휘자와 전 필라델피아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필라 한인 음악인협회장을 맡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215-499-0320으로 하면 된다.\*\*\*

### 강창환 동문 갤러리 개관 기념전



공업도시 버논에 제1호 한인 갤러리가 개관해 화가 강창환(63·사진) 동문이 개관기념 개인전을

가졌다. 강창환 동문 첫 개인전으로 5월 24일부터 6월6일까지 버논에 위치한 럭키 갤러리(5205-5207 Downey Rd.)에서 열렸다. 이 갤러리는 상업용 포스터 관련 사업을 하는 존 리씨가 개설한 ‘럭키 갤러리’로 강창환 동문은 “버논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만 1,800곳이지만 거주 인구는 112명 뿐이다”며 “새로 문을 연 갤러리에 첫 전시작으로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모교 법학과와 법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함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강창환 동문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한인 라

디오 방송에서 뉴스 앵커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동문은 은퇴 후 취미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4년 전부터는 전업 화가로서 작품활동에 매진해오고 있다. 강 동문은 그동안의 작품 중 50여 점을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했는데 여행 중에 찍었던 사진을 바탕으로 한 풍경화나 지난 세월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내면 생활 등을 표현해낸 추상화가 주 작품들이었다. 특히 그의 풍경화 작업은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한 신의 섭리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 동문의 작품은 웹사이트 ([www.changkangart.blogspot.com](http://www.changkangart.blogspot.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이필립 박사 ‘구속사 세미나’ 강연

동문 이필립 박사가 지난 5월 워싱턴 생수 장로교회가 주최하고 WMP가 후원하는 ‘구속사 세미나’에서 강연했다. 5월 16-18일 3일간 탁빌 소재 탁빌 제일침례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이필립 박사는 ‘창세기 족보에 나타난 오

묘한 구속사적 경륜’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필립 박사는 모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 목회학 석사, 라셀 대학 목회학 박사, 페이스 신학대 신학 박사를 거친 뒤 현재 베리토 신학대학원 총장을 맡고 있다.\*\*\*

- 심가 명복을 빕니다**
- ▶곽한석(상대 46) 동문= 지난 5월, 13606 Lajolla Cir. La Mirada CA. 자택에서.
  - ▶고중경(상대 53) 동문<고정범(법대 79) 동문 부친> = 지난 5월 5일 자택에서.
  - ▶박경민(의대 53) 동문= 지

- 난 6월 8일 매사추세츠 자택서
- ▶노재욱(의대 58·시카고 골든클럽 회장·한국정원클럽 회장) 동문= 지난 5월 26일 Chicago Northbrook 자택에서.
- ▶김기석(상대 59)동문= 지난 5월 24일 뉴욕 자택에서.
- ▶임유 동문 부친상= 지난 5월 2일 서울에서.

### 피아니스트 채경주 동문 독주회

지난 5월 캘리포니아의 패서디나 중앙도서관 오디오리움에서 바하·베토벤·슈베르트 등

창, 슈베르트 즉흥곡(Op.posth 142) F단조 글림카의 중달새, 지나스태라의 아르헨티나 춤곡 등이다. 모교 음대를 졸업하고 USC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채경주 동문은 그동안 한양대와 명지대 등에서 강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미주 여러 지역을 돌며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김춘환 동문 뉴욕에서 첫 개인전



주로 프랑스에서 작품활동 중인 화가 김춘환 동문이 지난 5월 말 뉴욕에서 자신의 첫 개인전인 ‘Folding the Image, Unfolding the Real(작품 사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김춘환 동문의 개인전은 5월 31일부터 7월 14일까

지 맨해튼 트라이베카 에단코 갤러리(14 Jay St.)에서 열리고 있다. 김춘환 동문은 모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 1999년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일대 각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개인전은 물론 평소에도 프랑스와 한국에서 수집한 일상 생활 속 광고 전단과 잡지 등을 소재로 콜라주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연락처는 전화 212-625-1250으로 하면 된다.\*\*\*

특집<암> MD앤더슨 김익신 박사 칼럼<> 암 치료의 방향 <마지막 화>

### “전문가들과 환자가 함께 토론해 결정”



김익신(의대 66년 졸)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

환자 중심 통합진료시스템으로 의사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외과·종양내과·병리학 등 각 분야 전문의들이 회의, 수술할지 할지 여부를 결정... 환자가 거부하면 차선택 제시

▶환자 중심의 진료= 동료 미국인 의사가 폐암환자를 3시간 붙잡고 진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대기환자들이 줄줄이 밀려 있는데, 암 환자와 의사간의 질의응답은 끝날 줄 몰랐다. 밖에서 기다리는 환자에게 “불만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괜찮다(No problem)”는 반응이었다. “내 생명이 저 환자처럼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이 의사는 나에게도 그렇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MD 앤더슨 진료는 환자 중심으로 돌아간다.

▶통합 암 진료과 운영= 누구나 암에 걸렸다고 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를 위해 병원은 ‘통합 암진료과(General Oncology)’를 운영한다.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환자들이 모두 이곳을 거친다. 여기에는 각 분야 암 전문의가 모여 있다. 외과·종양내과·영상의학과·병리학 전문의 등이 토론을 통해 환자의 치료방향을 정한다.

▶최종 결정은 환자였= 환자들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수술을 먼저 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항암제를 시도할지 결정하면 그 결론을 환자에게 제시한다. 암 치료 교동정리를 하는 셈이다.

최종 결정은 환자가 한다. 환

가 적합한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치료는 시작이 가장 중요= 암 치료는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치료 결과도 나쁘고 환자가 고생하게 된다. 암 환자가 처음부터 의료진의 치료법에 확실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희망도 생기고 결과도 좋다.

MD 앤더슨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많이 보거나, 수술을 많이 하거나, 검사를 많이 낸다고 해서 의사에게 ‘인센티브(연봉의 가의 수당)’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들이 환자를 서로 가져가려고 경쟁하지 않는다. 협동진료가 잘 이뤄지는 이유다.

▶의사 보수 사립대 병원 절반 수준= 의사 연봉은 군대조직과 같아서 직급이 높거나 근무 연



MD 앤더슨 암센터 전문의들이 유방암 환자 치료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MD 앤더슨에서는 모든 암 환자 치료 방침을 여러 진료과(과) 의사들이 모여 결정한다.앤더슨 암센터 제공.

다. 그게 병원 운영 방침이다. 젊은 교수들은 주로 상성 한

텍사스 주립대학 부속병원인 이곳의 의료진 연봉은 사립대 병원 절반 수준이다. 그럼에도 미국 최고의 암센터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잘 가지 않는다.

한 해 연구비는 약 6천100억원으로 단일 의료기관 가운데 전 세계에서 암 연구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의화 연구와 암 진로의 복합체(cluster)’인 것이다.

▶환자의견 무시하면 징계= 암 환자 중심 체계의 핵심은 청원(請願)제도다. 진료에 불만있는 환자들은 연례든 병원내 상주하는 변호사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일종의 고충처리 위원회로, 청원 담당자들은 환자 편에서 서서 일을 처리한다. 최종 결론은 목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내린다. 그 의사는 무조건 징계받는다.

▶한국 암치료수준 급속 발전= 최근 한국 병원의 암 치료 수준은 급속히 발전했다. 내가 만약 암에 걸리면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병원의 암 치료 기술은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다.

하지만 아직 암 환자 중심의 진료 문화는 부족한 듯 싶다. 암 치료의 기술 뿐 아니라 환자 중심의 문화와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 힘을 써주었으면 한다.

< MD 앤더슨 암센터 >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 부속병원으로 1930년대 목화 사업으로 큰 돈을 번 MD 앤더슨의 기부에 의해 세워졌다.

총 546병상에 1만8천여 명의 의료진이 근무한다. 병상당 의료진 수가 한국 대형병원의 10 배가량 된다. 지난 해 113만명의 암 환자가 이 병원을 방문했으며, 새로운 암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 연구가 한 해 1천9천여 건에 달한다.

지난 2000년 폐암에 걸린 삼성이건희 회장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다. 세계 최고 암센터라는 명성 덕분에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 환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끝>

### “내가 만약 암에 걸리면 귀국해서 치료받고 싶을 정도로 고국의 치료기술이 발전했으나 환자 중심의 진료문화가 부족해 치료기술 뿐 아니라 이 분야 발전이 중요하다!”

자가 “죽어도 수술은 못 받겠다”고 하면 차선택을 권한다. 때론 담당 의사를 정해주기도 한다. 암 치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하기 때문에 암 환자

수가 많은 사람이 높다. 그렇다고 나이 많은 의사가 편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진료 경험이 많은 정교수급 의사가 환자를 더 많이 봐야 한

이디어를 갖고 임상 연구에 매달린다. 나이 들었다고 환자 진료는 젊은 교수들에게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다가는 쫓겨나기 십상이다.

<한시(漢詩)감상> 이백의 ‘야숙산사(夜宿山寺)’

### “하늘에 닿을 듯 별이 되어”



김동근(공대 60)

이백의 ‘夜宿山寺(야숙산사)’

危樓高百尺 (위루고백척) 손이 닿을 듯 별이 되어 (수가적성진) 不敢高聲語 (불감고성어) 恐驚天上人 (공경천상인) 산사에서 밤을 지내다/ 백 척이나 높은 위루스런 누각/ 손으로 별을 닿 것 같구나/ 큰소리로 감히 말할 수도 없네/ 하늘나라 사람들이 놀랄까 두렵네. (깊은 밤, 높은 산, 더 높은 누각/ 별이 손에 잡힐 듯/ 큰 소리 작은 소리 아무 말이 필요없는 곳/ 땅위 사람 일은 모두 잊어버려도 되는 때)

- 이런 기분이겠지요. 필자는 가끔씩 비부액(Bivouac)할 기회가 있습니다. 온갖 별들이 반짝이는 밤 하늘을 경탄할 수 있지요. 천궁(天宮) 저 멀리 무량(無量)의 별들이 둘러싸여 마치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서있는 것처럼 착

각하는 사이, 어느덧 모든 별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오며 거리(距離)라는 차원(Dimension)이 없어져 버립니다. 별들이 소곤대는 이야기가 들리는 듯, 이 별들이 돌아가신 분(故人)들과 오실 분(來人)들을 포함한 하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라면, 그들의 존재를 한 몸에서 느끼면서, 시간이라는 차원마저 사라집니다.

드디어 우주의 신비 속에서 자기의 참된 위치를 발견하는 두려운 순간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이백의 대담한 상상력이 독자로서 하여금 마치 어린 아이들의 세계로 빠져 드는 듯합니다. Picasso나 Miro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동심(童心)을 배우려고 수십 년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자(危字)와 공자(恐字)를 쓴 것으로 보아 어딘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요즘은 Light Pollution이 심각해서, 도시 주변은 물론 Death Valley에서도 옛적에 보던 밤하늘이 아니라고 합니다.

Las Vegas에서 Light Pollution에 대한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이백이 보던 이런 하늘은 점점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주 석굴암 앞 종루 <김지영(사대 60) 동문 촬영>

이 시에 나오는 산사(山寺)는 지금 호북성 황매현 채산진 채산(湖北省 黃梅縣 蔡山鎮 蔡山)에 있는 강심사(江心寺)라는 설(說)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이백의 출생 또는 사망에 관하여도 일정한 정론(定論)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관공 산업까지 맞팔려, 여러 지역에서 학자들까지 동원하여 옛 시인들을 이용한 관광 상품들이 많아져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착동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백의 다른 시 ‘제봉정사(題峰頂寺)’는 이 시와 첫 2 행만 다릅니다. 왜 비슷한 시가 두 수 가지 설이 있습니까.

하여간, 제봉정사(題峰頂寺)는 ‘夜宿峰頂寺(야숙봉정사 : 봉정사에서 밤을 지내며) 擣手捫星辰(거수문성진 : 손을 들어 별들을 어루만지네)’ 이렇게 시작

합니다. 宿(숙):목다. 자다. 별자리. 頂(정):꼭대기. 정수리. 寺(사): 절, 危(위):위태하다. 아슬아슬하다. 樓(루):누. 다락. 高(고):높다, 尺(척):거리를 재는 단위 丈(장) 시대 때의 소尺(소척)=24.6cm, 手(수):손. 可(가):가히. 扨(타), 辰(진):별 진. 捫(문) (신속열장)辰宿列張, 敢(감):감히. 捫(문):어루만지다. 驚(경):놀라다. 夜(야):밤. 懸(풍):산봉우리. 正(정) 擣(거):들다. 들어 올리다. 捫(捫)(문):어루만지다. 성진(星辰): 하늘의 별들. 별하나 나 하나 등. 천상인(天上人):天上인이 누구인가? 비록 신선(神仙)만 아니라 모든 하늘의 사람들. 예: 天上人間不相見(천상인간불상견). (최현의 절석연현포 崔顯 七夕宴懸圃) \*\*\*



생활 수상(隨想)

“어둠이 짙어야 새벽이 가깝다”



김훈묵(사대 58)

▶고국 조망 3가지 무기= TV와 e메일, 그리고 미국에서 팔간 되는 한국어 무료 주간 광고지, 그게 내 조국 돌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세 가지 무기다. TV는 통신위성을 통해 들어오는 디렉트 TV 한국 방송과 몇 개월 전에 미국 생활 40여년간 서로 알고 지내는 친지가 우정 컴퓨터 셋업 비용까지 내주면서까지 필자에게 만들어준 풍디스크인가 뭔가 하는 e메일을 이용한 TV다.

분류로 말하자면 e메일에 속하니 한국 돌아가는 모양새를 필자만큼 방송과 e메일에만 의존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여긴 아예 한국 조강과 석간 신문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땠고, 김정일이 어땠고, 김정은이가 어땠대서 겁날 것도, 마음 아플 것도 없는 미국에 귀화까지 한 망팔(望八)을 넘어서신 사람인데다, 죽기를 작정하고 먹고 살 돈은 장만한 덕분에, 아이들 신세를 지지 않고도 굶어 죽을 걱정은 없는 처지다.

▶심각한 교착증= 굳이 몇 만 리가 되는지도 모르는 작은 한판도를 들여다보며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손바닥 위에 얹어 놓고 바라보듯 날마다 입에서 탄식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병 치고는 여간 심각한 교착증(膠着症)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기로 일주일만에 하나씩 써내던 칼럼을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벌써 2주를 글 한줄기 쓸 수가 없는 것은 ‘나팔수’라느니, ‘협합’ 같은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 머리를 어지럽히는 까닭이다.

한심하기보다는 노인병이 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어 이마도 여러 번 두들겨 보고, 눈도 깜빡거리 보지만, 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오늘에서야 그 까닭을 깨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꼴이 하도 기가 막히 누가 고마워하지도 않는 데 들여다보고 탄식이나 터뜨리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만은 아닌 듯 싶어서다.

▶선전의 교훈= 선전계서 내게 일러준 교훈이 몇 가지 중 그래도 대박을 낸 것은 첫째가, 머리 큰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내가 나 이 들어서 혼자 깨달았지만 ‘두대왈 장군(頭大曰將軍)’ 이요, ‘족대왈도(足大曰盜)’ 라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 까닭으로 머리 큰 여자를 얻으면 남자의 위치를 빼앗겨 내주장(內主張)을 하는 집안이 딸 씩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라도 여인천하가 된 적이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더러 있었으니 경제할만 하기는 하다.

나이들어 혼자 깨달았지만 ‘두대왈 장군(頭大曰將軍)’ 이요, ‘족대왈도(足大曰盜)’ 다. 북한 힘을 빌리지 않으면 권력잡을 수 없는 것이 종북좌파다”

미국에 살면서 가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혼자 미소를 머금는다.

그 아내인 힐러리 클린턴이 제 메이든 네임을 버리지 않고 퍼스트 레디가 되어서도 간직 하려고 하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오늘 날 미국무부 장관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는 까닭을 알 수 있고, 빌 클린턴(William Jefferson 'Bill' Clinton) 대통령 재임시 인턴 직원이던 모니카 르윈스키(Monica Lewinsky)와 세스 캔들까지 일으켰던 그의 내면에는 ‘두대 장군 힐러리 클린턴(Hillary Diane Rodham Clinton)’의 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머리가 크다는 말은 상징적 표현이었다.

▶여인천하= 한국은 지금 여인천하가 되어 가는 게 아닌가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 비스 박근혜가 14년 복은 정당의 이름까지 갈아가면서 환골탈태(換骨奪胎)에 착수하였다.

제1야당은 민주당합당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전 노무현의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이 얼마 전까지 의리와 자존심에 생사를 건 대한민국의 사내들을 여지없이 짓밟아 수렁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함께 망신살이 뿜었으니 노무현의 FTA는 그가 임명한 총리에 의해 역적의 반역질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내 할아버지는 남자가 죽기 전에 여인이 팔을 건어붙이고 나서는 집안은 결코 오래 가지 어렵다고 하였다. 또 하늘이 남녀를 유별하게 갈라놓은 것은 다 그 뜻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책은(?) 유교사상으로 물들어 버린 대한민국이 비록 21세기를 당하였다고 하여도 사내 녀석들은 도조리 도성본능의 등 뒤편에 숨어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본디 하늘이 그런 그림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여성 상위시대가 온 것인가.



던 북한이 왜 지금도 배성들을 아사시키면서 여기저기 구걸을 하는가. 남한의 종북세력은 아직 대각진 운동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운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상(偶像)정치로 밤을 새운다.

이 지구상에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모 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한강의 기적은 작은 마을에 흐르는 실 개천의 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너무 많다.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자가 된 수많은 젊은이들을 중소기업의 공장으로 밀어 넣을 때 대한민국은 명실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곧 ‘용불용설(用不用說)’이다. 세계를 뒤흔들던 일본제국 주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른다.

▶전북·종북분자 권력 불기= 물론 지금의 종북분자들이 권력을 잡을 희망은 없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투표하는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1970년대의 그렇게 명칭한 저 월남의 무지렁이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들처럼 돈만 움켜쥐고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상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김정은의 품에 들어가 그 부자유와 굴욕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들이 부의 불균형한 분배를 증오는 하지만 자유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북한의 그 엄청난 궤박 속에서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6.25한국전쟁으로 인민군·중공군이 150만, 국군과 연합군 40만, 민간인 400만 명이 사망했고, 고아가 무려 10만이었다. 거기에 부상자를 포함시킨다면 그 숫자는 우주의 별들의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김일성이 소련의 살인마 스탈린에게 매달려 애걸복걸해 얻어낸 2차대전에 남은 병기로 우리의 강토를 유린하여 피로 물들였던 것은 미쳤다고 설명할 길 밖에는 없다.

그것들을 감추며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였다. 소련 페기 비밀문서를 선물로 받은 이대통령의 문서실에서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이 북한의 3대 세습의 독재자 제1세대 김일성의 살인마적인 마자(馬脚)이 드러난 것이다.

그걸 한 번 더 반복해주기를 애걸하는 자들이 바로 종북 좌파들이다. 이번에는 핵폭탄으로 핵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야 권력의 차체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전북·종북은 즉각 최결= 당연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 친북·종북은 즉각 최결(剷抉)돼야 한다. 야당이 친북하는 것은 그들이 정권을 잡을 힘을 빌리자는 뜻일 뿐이다. 어차피 북한은 멀지 않은 시기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돼 있다.

그들이 비록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 선진국들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이 그들에게 먹줄 양식을 그지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땅한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곧,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공히 강력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제대로 된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모든 중소기업은 이민은 이탈리아·그리스 등 수 많은 서구 문화권의 이민자들이 세운 건축·생필품 생산 산업이다. 몇모르는 젊은 흑인 대통령 오바마는 당국의 한국 교육의 꺾임만 보고 느닷없이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칭찬한다.

인젠가는 학원이 다 생필품 산업, 또는 기술, 과학적 생산 학원으로 바뀔 때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실상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미개발국, 아프리카의 노동자 숫자는 딱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인 노동자 만큼이다. 그들은 미국의 흑인들처럼 애플단지로 전략해 필요 없는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흑인과 스페니스들과 같이.

▶전북·종북은 즉각 최결= 당연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 친북·종북은 즉각 최결(剷抉)돼야 한다. 야당이 친북하는 것은 그들이 정권을 잡을 힘을 빌리자는 뜻일 뿐이다. 어차피 북한은 멀지 않은 시기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돼 있다.

그들이 비록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 선진국들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이 그들에게 먹줄 양식을 그지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땅한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곧,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그렇다고 사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그건 뭔가 그릇되어 가는 것이다.

▶책은 공산주의 이른= 중국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으로 4,500만 명이 살해되거나 아사(餓死)하는 비극을 가져 왔고, 소련이 5,500만 명의 사망자나 아사자를 낸 스탈린의 공산주의 혁명은 유사 이래의 대 비극으로 소련인들이 그를 악마로 취급할 정도의 비극을 가져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하여 오늘 날 중국은 일본을 추월한 제2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일거수 일투족을 판 박듯 하

동문 시 감상

“나는 어찌라고...”



정화자(미대 50) 화가·문인

눈에는 돌보기, 귀에는 보청기 서로 즐기던 대화는 어찌 나눌꼬

공공대며 허무러져가는 소리 어디 가려고 저리도 공공 거러시나

손에 든 열쇠 찾고 있으니 정신은 잠시 쉬고 있나

그대 가버리면 나는 홀로 어찌 살거나 홀로 살 수도, 함께 길을 갈 수도 없고



부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함께 길을 가자요.

이제 그것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지는 것이다. 새카만 어둠이 밀려들 것이다.\*\*\*

이 달의 초대석수 김한교 Cincinnati대 명예교수

# 국제정치학계 한 시대 풍미

## 6.25 한국전쟁 때는 중군기자도

김한교(문리 47) 박사는 펜실베이니아의 명문 Swarthmore대학을 거쳐 시카고 대학에서 국제관계론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지난 1963년 Cincinnati대 교수로 취임해 1996년까지 33년간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했다.

그동안 국제정치학의 저명한 학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으며 미국 내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내 'Committee on Korean Studies'의 Chairman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난 2010년 11월 미주 동창회 주최로 LA에서 열린 'Brain Network Workshop'에서 '올바른 통일관의 함양'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동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한편 소싯적에는 6.25 참전 중군기자로도 크게 활동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부인은 모교 의대 교수를 역임한 김은자(의대 53년 졸) 동문이다. 현재 신시내티에서 은퇴생활 중인 김한교 명예교수를 '이달의 초대석'에 모셨다.

- 처음 상대 45년 입학으로 되었는데요.  
"1945년 경성경제전문학교(지금의 모교 상과대학의 전신)에 입학했으나 취향이 맞지 않아 1947년 문리대 정치학과로 전과해 47년 입학으로 바뀌었지요."

- 한 때 언론사 기자로도 일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치학과 재학중인 1949년 '연합신문'에 들어갔어요. 당시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학교 다니면서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으니까요."

-언론사로 취업하시게 된 동기가 따로 있습니까.  
"당시 서울에 파견된 '국제연합임시 한국위원회'의 시리아 외교관 Muguir이 김포공항에 내리는 걸 인터뷰해야 하는 데 사내에 영어하는 기자가 없어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부랴 부랴 신문사 차를 타고 가서 인터뷰 기사를 작성했는데 제가 입사하는 날 바로 그 기사가 신문에 게재됐어요."

- 학창시절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요.  
"1948년 여름 당시 미 군정청 문교부가 개설한 중학교 교사를 위한 '한국 교원 연수원(Teacher Training Center)'에서 미국 교육학 교수의 조교로 교수 강의를 즉석 번역하게 돼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사전에 한 6개월 집중적인 어학연수를 하기는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 그때에 비교적 단기간에 영어를 배웠습니다."  
- 외국에 특파원으로도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951년 1.4 후퇴 후 부산에서 신문사가 한동안 휴업했어요. 그동안 농림부 장관 비서실에서 구조 식량수입 교섭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11월 경 일본 동경에서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연방신문에서 동경 특파원으로 나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좋은 기회인 데다 외국 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 수락했지요."

한일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는 양유찬 주미대사였고 유진오 법제처장, 홍진기 법무부 국장, 임송본 산업은행 총재 등이 어려운 외교 절충을 시작했지요. 주로 우리 측 대표들을 인터뷰해 기사를 써서 본사에 송고했습니다."  
- 6.25 전쟁 중에는 어땠나요.  
"서울 수복후 1950년 10월 중순경 중군 기자로 일선에 나가 38선을 넘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을 두고 남북으로 북한군과 대치한 상황에서 백선엽 사단장이 이끄는 국군 제1사단 병력이 강 남쪽 선교리에서 미국 제1 기갑사단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지요. 평양전입 전날 밤 백 사단장이 저와 동행 기자 몇 사람에게 "누님이 평양시에 살고 계신데도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았습니. 제가 그들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도 지도했지요. 서울대에서 댔던 전 정년퇴직한 전인영 교수와 체코 대사를 지낸 민병석 동문이 70년대 가장 먼저 유학왔어요. 미단 서울대 동문 뿐만 아니라 연세대와 외국어대 출신들도 우리 과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 주로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지요. 다들 우수한 인재로 중국고어를 빌린다면 '출렁이' 격입니다. 교수로 보람이지요."

-정치학회 국제 활동도 활발하게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요.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내의 'Committee on Korean Studies'의 Chairman으로 있을 때 '굳이 나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으니 없애는 것이 어떠냐'는 여론이 일어났어요. 안 되겠다 싶어 뉴욕까지 가서 당시 AAS 간부던 Theodore DeBary교수(Columbia대학)을 만나 설득해 막았지요. 한국학이 미 학계에서 자리잡기 시작할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한국학 분과 위원회가 존속해 있습니다."

-북한 방문 뉴스도 있는데요.  
"중군기자 이후 지난 2007년 처  
←김한교 동문(왼쪽에서 세번째)이 연합신문 기자 시절이던 지난 1950년 일본 동경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열심히 취재중이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굉장히 어려울 때였을 텐데요.  
"문교부에서 일할 때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McCuskey 교수와 계셨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분이 스와스모어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아주었어요. 게다가 장학금을 받아 가긴 했지만 그 돈으로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 분이 따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고, 은혜도 다 갚지 못할 은인인데 불행히도 몇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 그 밖에 유학 중 어려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돈은 아끼느라 태평양을 배로 오던 중교장으로 9월 첫 학기가 시작되고 3주일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불과 열흘 뒤 중간고사가 시작된 겁니다. 당시 전공과목 중 한나인 미국의교정제론 시험문제 중 외교관 등급과 연봉에 관한 것이 천만 뜻밖의 문제라 엄청 당황했습니다. 정치과 수업도 문제였지만 외국어 한과목은 필수라 불어를 선택했는데 사르트르를 원서로 읽고 토론을 해야 하는 과목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울대에서 4학년 첫 학기까지 다닌 점도 인정받아 1년 반만에 스와스모어 대학 졸업장을 받았습니."

-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시카고 대학에서 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친지 중 학자 한 분이 정치학은 시카고 대학이 가장 전통이 오랜곳이라고 추천했어요.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한 학교로도 유명하지요."  
-신시내티 대학에 계시 때 외국 출신 유학생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학생 10여명이 이학교에서



↑최근 부인 김은자 동문과 함께 하와이를 여행했다(윗 사진). 지난 2010년 11월 LA 'Brain Network Workshop'에서 (아랫 분 오른쪽에서 두번째).

음 방문했어요. 동문으로 조지아 대학 박한식 교수와 시카고의 고병철 명예교수, 밴쿠버의 박경애 교수, 아이오와의 김영환 교수 등이 동행했어요. 우리들은 학생들이라 그런지 의출에도 별로 규제가 없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고려호텔에서 묵었는데 외국 방송도 비교적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평양 사법대

이 서약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시 유학생 사회에서 이런 일은 흔했지요."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딸만 둘인데 첫째는 이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니보다 3년 어린 둘째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의과대학을 나와 병리학 교사로 재직 중이지요. 현재 손자 손녀가 4명입니다."

- 좌우명이나 후손에 대한 교훈이라면 어떤 것이요.  
"뜻이나 꿈은 되도록 크게 가지고 그에 맞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뤄진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 안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 미국 땅에 올 때 이렇다할 연고도 없이, 게다가 가진 돈도 거의 없이 왔는데 그러한 소신이 없었던 건 견뎌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당시 유학생이라면 거의 모두가 마찬가지였죠.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인 자세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28년 서울 출생. ▶1945년 경성 경제전문학교(서울대 상대 전신) 입학 후 47년 문리대 정치학과로 전과 ▶1949년 연합신문 기자 ▶1950년 6.25 한국전쟁 중군기 제1사단 중군기자 ▶1951년 11월 한일회담을 계기로 주일 특파원 ▶1953년 9월 Pennsylvania의 Swarthmore College 입학, 1955년 졸업 ▶1957년 Chicago대학에서 석사 학위 ▶1963년 Chicago 대학에서 박사 학위 ▶1959-63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ollege at Oneonta, NY.에서 Instructor. ▶1963년 Ohio의 Cincinnati 대학 교수 ▶1996년 Cincinnati대학 정년 퇴직해 명예 교수 ▶Modern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Korea의 저서 및 논문 다수 ▶Member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편집주간>



## “뜻이나 꿈은 되도록 크게 가지고 거기에 맞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면 이 세상에 안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우리를 안내했는데 당의 공식적인 사상과 주장을 앵무새처럼 외워대는 현상은 뉴스에서 보던 것 그대로였습니다."  
-북한의 향후 잠재가 가장 궁금합니다만, 어떻게요.  
"아무리 북한 당국이 정보 통제한다 해도 인터넷 사용자나 휴대폰 가입자가 급속히 늘는 정보통신 시대에 완전 통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단절됐던 외부 세계의 현실이 민중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사회내부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비록 그것이 언제일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요."

- 결혼 과정이 궁금합니다만.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어 1965년 3월 37세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아내가 된 김은자 동문은 1953년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모교 병리학 교수로 있을 때였죠. 중학 선배인 홍원식 동문이 유학 와 계셨는데 어느 날 '노총각 장가들게 여성을 소개하겠다'며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내가 '좋습니다'고 하자 연락처를 가르쳐주시어 그 날부터 편지를 주고 받는 '문통(文通)'을 시작해 1년 후 김은자 동문이 미국에 와 3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 미국에서 두 분만의 결혼식이 있었네요.  
"당시 여건상 장인 장모도 참석하지 못하고 판사 사무실에서 들

‘포탄을 있는 대로 모두 평양 시내에 쏟아부으라’고 명령해야 했다”고 가슴아프게 실트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후 서울에서 백 장군을 만났는데 ‘누님이 포격 전 탈출해서 안전하게 피난했더라’고 해 수심만 동안의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 어떻게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됐나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선전게서 우리들에게 "일본은 이제 곧 망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8.15 해방되자마자 영어 공부에 치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경 한일회담 취재 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되겠다 싶어 바로 미국유학을 왔어요."

-미국 대학 정보나 경제사정이



←중부 텍사스 동창회 회원들이 지난 4월 한식당 '조선 갈비' 에 모여 첫 임시 총회가 끝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중부 텍사스 동창회 이영재 회장(왼쪽)이 임시 총회의 본 회의를 진행 중이다.

**중부 텍사스 동창회**

**창립총회 이어 첫 임시 총회 열어**

중부 텍사스 동창회(회장 이영재 상대 59)가 지난 4월 28일(토) 어스턴 소재 한식당 조선갈비에서 창립 총회 이후 첫 임시 총회를 가졌다.

중부 텍사스 동창회는 지난 해 8월 킬린시에서 5명의 발의로 시작하여 올해 1월 조지타운시에서 10명이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다.

그 뒤 2월 미주 총동창회에 가입한 중부 텍사스 동창회는 이후 지역내 모교 동문들을 수소문해 결집시킨 결과 불과 3개월여만에 30명이 넘는 동문들이 모여 임시총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52학번에서 07학번까지 무려 반세기를 넘는 연령 차이의 동문들이 함께 모여 서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 받

았을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 회의록 인준 및 회칙안 승인 그리고 부회장(차기회장) 선출 등 현안을 의결처리하였다. 또한 고문으로 손정철 동문(음대 52)을 추대하고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탄없는 의견들을 개진하기도 했다. 중부 텍사스 동창회의 부회장으로는 김성근(법대 78) 동문이 참석 회원 다수의 지지를 받

아 선출되었고 김 부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칙에 의해 차기 회장을 맡게 된다. 회의를 마친 동문들은 연말에 있을 정기 총회 때 다시 만나기로 하되 각 단과대학별 또는 학번별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동문의 우의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홍순협 총무〉



**남가주 동창회**

**JJ.Grand Hotel에서 이사의**

남가주 동창회가 지난 5월 16일 오후 LA소재 JJ. Grand Hotel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 총 30여 명의 동창회 이사진과 각 분야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이사회는 김성수 총무국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다. 서치원 남가주 동창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성수 총무국장의 참가자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서치원 회장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동창회 행사들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함을 드린다. 하반기 행사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사업 보고에서는 박승규 재무국장의 재무 보고에 이어 올해의 행사 및 사업으로 지난 해와 같은 골프 토너먼트, Hollywood Bowl 가족의 밤, Bishop

지역 가족 캠프, 관악연대 행사 계획 등에 관해 보고했다. 골프 대회는 지난 5월의 춘계 골프대회에 이어 후반기인 9월경 추계 골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Hollywood Bowl 가족의 밤’ 행사는 역시 가정대 주관으로 7월 경으로 계획 중이며 ‘Bishop 지역 가족 캠프’는 Labor Day 연휴 기간에 2박 3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가주 동포사회에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동문 밴드 ‘Curly Fries’가 마침내 8월 18일 코리아 타운 밴파 극장에서 첫 번째 공연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 공표됐다. 한편 ‘제7회 남가주 동창회 합창단’ 공연은 논의 끝에 올해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상 행사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



**뉴 잉글랜드 동창회**

**정기총회 열고 장학금 지급**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병국)가 지난 4월 28일(토) Lexington Avalon 에서 2012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천수씨와 김광민씨가 초청돼 70-80년대 크게 유행했던 가요를 연주했으며 동문들과 가족들은 신청곡과 더불어

세시봉 스타일의 가요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총회 회의는 사업 보고와 재정 보고에 이어 동창회가 주관하고 있는 올해의 장학생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각 대상 분야 장학금 수여 행사가 있었다.

↑뉴 잉글랜드 동창회 회원과 가족들이 정기 총회후 기념촬영을 했다. ←정기 총회후 가진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수여식에서 동창회 임원들과 장학금 수여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국 회장, 김서현 모친(대리수상), 권나영(상대 07), 최지호(농대 96), 김용구(공대 66) 장학위원장.

장학금은 3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돼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신 동문 장학금은 하버드 대학 박사 과정의 최지호(농대 96) 동문, 윤상래 전 동창회장 장학금은 보스턴 칼리지 석사 과정의 권나영(상대 07) 동문, 그리고 동창회 장학금은 UMass Amherst 학사 과정의 김서현 동문 등에게 각각 수여되었다. 이날 차기 동창회장과 임원에 대한 선출도 있었는데 차기 동창회 회장에 간호대 정선주 동문, 감사에는 약학대 김선혁 동문이 각각 선출되었다. 〈김병국 회장〉





←워싱턴 동창회 인사들이 방은호 동문의 미수 생신 음악회후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박평일(농대 69, 동창회감사)·변만식(사대 48)·방은호(약대 1회)·이내원(사대 58)·박용걸(약대 56)·오인환(문리대 63, 미주 동창회 차기회장)·정상목(약대 83) 동문. ↑방은호 동문이 사진 앞에서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 동창회

방은호 동문 미수생신 음악회

워싱턴 동창회가 지난 5월 19일 Washington, DC 소재 메트로폴리탄 기념 감리교회(Metropolitan Memorial Methodist Church)에서 방은호(약대 1회) 원로 동문을 위한 미수(米壽) 생신축하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동문을 비롯해 방은호 동문의 친지와 교인, 배재고 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 동문의 선친인 고 방훈 목사님의 순교 60주년 기념 행사를 겸해서 열렸다. 방은호 동문은 꼭 아침에 1-2마일 걷기와 취침 전 Push Up 50회를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한다. 또한 항상 낙천적인 성격으로 장수의 조건을 모

두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 동창회의 별도 모임인 '사랑방'은 이 행사 전인 5월 12일 음식점 '고이'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새로 정원자(농가정과 62)·안선미(농가정과 65) 동문과 그 따님(변호사), 방은호·변만섭·김부근·강연석 동문, 송상희 회장, 차기회장 후보 함은선(음대 77) 동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랑방' 활성화 방안으로 동문들이 '계'를 해보자는 의견도 개진했는데 부담이 안되는 액수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여성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면 더 쉬워질 것



로 생각됐다. '사랑방'이 잘 되면 훌륭한 연사도 초청해 유익한 강연도 듣고 때에 따라 Tour Group을 만들어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날 방은호 동문의 88세(미수) 생신 축하 Cake을 준비하고 'Happy Birthday Song'으로 축하했다.\*\*\*

모두 80대 시니어 동문들이 차지해 젊은 동문 골퍼들의 찬사를 받았다.

장애인 후원 골프대회

워싱턴 동창회는 또 5월 29일 메릴랜드 크로스 크릭 골프클럽에서 장애인 지원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자부문 1위와 2위를

퍼지니아 장애인 협회 회원들이 이날 도우미로 봉사했으며 이날 모금된 수익금액은 장애인협회측에 전액 전달될 예정이다.\*\*\* <오인환 미주 동창회 차기회장>



시카고 동창회

골프대회의 및 소식지 발간

시카고 동창회가 지난 5월, 29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Willowcrest Golf Club에서 춘계 골프대회를 가졌다. Korea Garden에서 열린 핏풀이에서 장기남(문리대 62) 동문이 서울에서 가져온 Jacket 6벌 외에 Wine, Golf Balls 등이 상품으로 전달됐다. 이날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남자> ▶Gross= 신택수

▶Net=한재은 ▶Closest= 신택수 ▶Longest= 최대한 <여자> ▶Gross= Mrs 장기남 ▶Net= 박숙 ▶Closest= Mrs 문병훈 ▶Longest= Mrs 박영규 이외에 이동균·문병훈·이시영·반용균·최희필 동문 등이 상품을 받았다. 한편 시카고 동창회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1권 1호부터 본격적인 소식지

↑뒷줄 왼쪽부터 최길용(문리대)·문병훈(사대)·반용균(의대)·이시영(상대)·김용주(공대)·김동희(공대). 두번째 줄 왼쪽부터 김운태(의대)·김영호(의대)·황치용(공대)·장윤일(공대)·Mrs 문병훈·Mrs 반용균·한재은(의대)·김길중(의대)·최희필(의대)·최대한(의대)·반용국(미대)·이동균(공대)·조중행(의대). 앞줄 왼쪽부터 임현재(의대)·한의일(공대)·장기남(문리대)·Mrs 장기남·Mrs 박영규·Mrs 한재은·박숙(의대)·박영규(농대)·신택수(의대)·노영일(의대) 동문 '시카고 서울대학교 소식'을 대폭적으로 확장해 발행했다.

NEWSLETTER 2012년 4월 April 2012 발행인: 최영호 | 편집인: 최영호

**시카고 서울대학교 동창회 소식**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Chicago  
3606 W. Lawrence Chicago, IL 60625 Website: www.snuamericans.org E-mail: snuamericans@gmail.com (773) 583-4122 or (773) 584-2555

두터운 우정/뜻모아 돕고 봉사하는 동창회

동창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2012 일인년 축제의 세레 일인 제1차 이사회(March 31, 2012)

우정과 보람을 키우는 새봄의 기운

총 16면 을 컬러로 발행되는 이 소식지 표지에는 '두터운 우정, 뜻 모아 돕고 봉사하는 동창회'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올해 동창회가 개최할 행사와 제정보고, 동문들 동정 등이 수록돼 있다.\*\*\* <김영호 회장>



↑이날 83타를 쳐 Medalist가 된 김광수(사진 왼쪽 공대 72) 동문이 이준행 골든 클럽 회장으로부터 트로피를 받고 있다.

이 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Medalist= 김광수(83타) Callaway Scoring(Net/Gross)  
 ▶<남자> 1등= 최병우(69/99) ▶2등=이강홍(70/97) ▶3등= 권영대(72/89) ▶<여성> 1등= 홍명희(72/101) ▶2등= 고운숙(72/116) ▶Closest= 손경택 ▶Longest= 남자 임창우, 여자 Mrs. 최수용 ▶행운의 추천상(32" Flat TV)= 최한용 ▶행운의 추천상(Digital Camera 2pcs. Navigator 1pc.)= 이능석 ·기도석·김봉희\*\*\*  
 <웹사이트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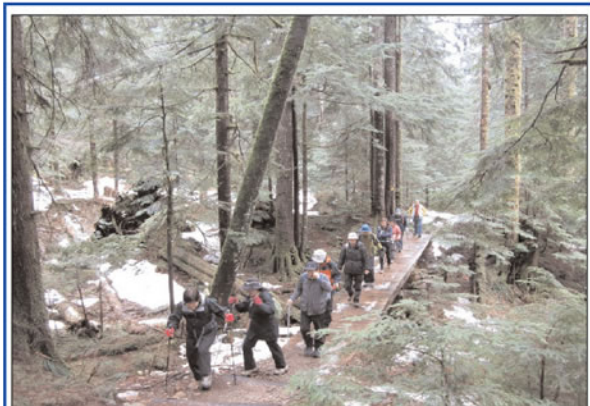
**뉴욕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순계 골프대회 개최**

뉴욕 동창회가 '이준행 골든 클럽 회장 및 최수용 이사장배 장학 기금 모금 순계 골프대회'를 지난 5월 8일 뉴저지 분단 놀웨스트 골프클럽(Knoll West Golf Club)에서 개최했다. 지난 해 가을 일기 불순으로 인해 이같은 동창회 골프대회

가 연기된 후, 새로 일정을 잡은 날도 날씨가 부산되어 아쉬움이 컸다. 샷건으로 열린 이날 역시 날씨가 오전엔 흐리고 오후엔 간간히 이슬비가 내린 일기였지만, 장학기금 모금에 뜻을 함께 한 76명의 동문이 참가하여 성공

적인 대회가 되었다. 경기 후, 클럽 하우스에서 이원재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시상식과 디너 시간에는 동창회가 준비한 멋진 상패와 풍성한 상품이 수상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경기의 메달리스트는 83타를 기록한 김광수(공대 72) 동문이 차지했다. 와인과 양식 뷔페를 즐기며 화기에애한 가운데,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레플 추천에서 이준

행 골든 클럽 회장이 기부한 삼성 Flat TV 1대는 Mrs. 최한용 님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최수용 이사장이 기부한 디지털 카메라 2대와 네비게이터 1대는 기도석·김봉희·이능석 동문에게 각각 행운이 돌아갔다. 이날 모금된 장학금은 언택 송년회에서 선발된 동문 후배 장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동창회 집행부는 이날 참가한 모든 동문에게 깊은 감사말 전했다.



**밴쿠버 동창회 Lynn Vally-Headwater 산행**

밴쿠버 동창회 동문들이 지난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토요일 Lynn Vally - Headwater 산행을 다녀왔다. 눈이 녹아 흐르는 맑은 물 소리와 새 소리를 빗살아 Norvan Falls의 폭포까지 2시간 반 정도 아이젠도 없이 가벼운 산행을 즐겼다. 이 산의 절경 중 한 곳인 폭포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다시 하산했는데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산행을 시작해 오후 3시 까지의 산행을 모두 마쳤다. 박기홍 선배의 킷라면 국물에 남궁영, 조현국 동문이 입맛을 다셨고, 문 회장은 버너의 개스 튜브가 열렸는지 작동치 않아서 가져온 불고기는 맛을 못보았지만 워십시 일반하여 즐거운 식사였다. 이광호 회장의 확인 한 모금으로 추위도 녹이며 한국님 선배의 과일로 입가심을 하고

나서 시원한 폭포를 뒤로, 하산 길에는 녹색의 이끼들과 이제 새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룸모를 작은 식물들, 그리고 끈끈하게 뻗은 나무들 사이로 춘철(황병기 동문님의 가야금곡 춘철을 듣는 듯 했다)이 한가로이 훑날리는 분위기가 그만이었다. 이제 막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박기홍 선배가 쏜신 맥카페 커피와 함께 3월의 산행을 마무리 하였다. 이날 산행을 함께 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이광호 회장님 부부, 문창영 산악회장님 부부, 홍국남 선배님 부부, 최승선 산악회 부회장님 부부, 박기홍 선배님, 남궁영 선배님, 손주희, 조현국 후배님. 신선한 봄 산행으로 3월을 마무리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손주희 총무>



**로키 마운틴스 동창회 김성수 동문 건강강연 및 McKinley 봉 등정기 특별 슬라이드 쇼 제공**

로키 마운틴스 동창회(회장 표한승 치대 58)가 지난 2월 구정(舊正)에 동문과 가족들을 위한 특별 교양 강좌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김성수(의대 59·사진) 동문이 초빙돼 인체 중 가장 중요한 심장에 대한 강의와 기타 유익한 건강 생활에 대한 강연을 해주었다. 또한 그가 지금까지로부터 33년 전인 지난 1979년 6월 목숨을 걸고 미국에서 제일 높은 McKinley 산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정복했던 당시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제작해 이날



쇼로 보여주었다. 이에 많은 동문들이 "특히 이날 아주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로키 마운틴스 동창회 동문들과 가족들이 지난 2월 구정 행사를 마친 뒤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가운데 앉은 분(노타이 정정)이 표한승 회장. 김성수 동문은 자신의 McKinley 봉 등정에 관한 이야기를 미주 동창회보에 지난 해 10월호부터 올해 1월까지 4회에 걸쳐서 연재했다. 김성수 동문의 이같은 McKinley 봉 등정기는 미주 동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이곳 동문 중에 열성이 깊은 동문으로 소문난(?) 불분과 출신 유광현 동문의 신간 'The Liberation Symphony'의 발간을 앞두고 이 저서에 대한 소개도 곁들여졌다. <표한승 회장>

<새기획> My Journey to America <> 김태환 동문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 <2>



김태환(문리대 60) EMI/In Haven CEO

Washington으로 이사할 날을 손꼽으며 기다리고 있던 중 Fayetteville에서 'Job Fair'가 열린다고 해서 알아 보니까, 여러 대형 회사에서 분예군에서 제대하고 사회로 나가는 ROTC 장교들을 주 대상으로 Recruiting을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 GM(General Motors)도 Finance 계통 인력을 모집한다고 해서 그 쪽에 응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GM Recruiter 쪽을 찾아가 보니 그야말로 지방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서는 잠깐씩 얘기를 나누며 다음 날 30분 짜리 정식 Interview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좋은 빨리 움직여 나갔습니다. 거의 모든 지방생들이 Resume만 가져가 Recruiter에게 보여주었는데 저는 한가지를 더 가져왔습니다. 제가 Bud Murphy 씨에게 보여준 것은 Managerial Accounting의 채점된 답안지였습니다. 담당 교수가 시험지 Margin에 "Teddy, You have no problem to become an Accountant. If you want, I can help you." 라고 적었을 뿐만 아니라, 큼직하게 A+란 점수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계 다음 날 5:30 PM Slot에 오라고 시간을 내줬습니다. 다음 날 지정된 시간에 Interview 장소에 갔더니 Murphy씨는 어제 보여준 시험지에 감명을 받았는지 전공이나 업무에 관한 질문은 한 가지도 하지

않고 30분 동안 가벼운 주변 정담만 나누었습니다. 저는 일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큰 GM에 취직이 안 되더라도 면접만 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는 "본사에 가서 면접 일정을 주선해서 연락해주겠다"고 흔쾌히 응락해줬습니다. Memorial Day 다음 화요일에 GM의 Buick Division에서 면접을 했는데, 먼저 자동차 조립 공정을 역순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부장급 3명씩과 면접을 하고 점심 때는 10명이 넘는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사실상 가벼운 Group Interview까지 해서 일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저는 거의 녹초가 되었습니다. 비행장으로 바다다 주는 길에 저를 Escort 해준 Brad Rogers 부장이 "다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해서, "환대에 감사하며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에 와서 Interview한 것만 해도 저로서는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역장이 정해져 있으므로 GM에 되는 안 되는 기의치 않으니까 결과만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Will tomorrow be soon enough?" 이라고 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뻐, "Sure enough. Thanks"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Fort Bragg 부대 가까운 곳에 있는 Spring Lake, NC 집에 돌아와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Rogers부장이 전화로 "Teddy, when would you like to start?" 라고 물으며, GM이 나를 뽑았다는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Teddy Kim의 취업 문제에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데 대해 저는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그 답은 Recruiter인 Murphy 씨가 제가 보여준 시험 답안지에

담당 교수가 Margin에 적은 Note를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6월 중순에 시작하겠다"고 답을 해주고, Bank Audit Agency에 연락해서 GM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Washington, DC 직장을 포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를 뽑아준 고마운 분들에게 Decline 을 알린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GM에서 제게 Offer한 연봉은 정부직보다 2 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대기업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무작정 도미로 미국에 온지 5년(1979년 6월)만에 세계 최대 기업에 근무하게 되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North Carolina는 가구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가구 값도 싸고, 이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주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좀 장만했습니다. 지금도 North Carolina에서 마련한 가구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Flint, Michigan에 있는 GM의 Buick Division의 Home Office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동료와 상사들이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일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약 2주가 지나서 제 인생에 일대 전기를 가져다준 큰 Event가 일어났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Blonde 머리의 미녀가 저의 사무실에 천사처럼 나타나서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Hi, My name is Corrine Walijarvi and a Harvard MBA. Just graduated earlier this month. I started to work here as a General Supervisor. Please help me when I may come to ask for your help"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당찬 자기 소개에 한마디로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나이 30도 안되는 여자가 General Supervisor로 일한다는 것은 파격적이었습니다. Supervisor는 대체로 6-10명의 노무자를 거느리고, General Supervisor는 6-8명의 Supervisor를 관장합니다. 기세가 당당한 UAW노무자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약 50-60명의 노무자를, 남자들도 하기 힘들어 하는데 여자가 한다는 데는 일종의 존경심마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Harvard MBA 출신을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제가 어떤 계기를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틈만 나면 Corrine을 찾아가 Harvard MBA Program에 대해 자세히 물어 보았습니다. Corrine은 자주 찾아가서 물어봐도 조금도 싫은 표정을 하지 않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저는 Corrine의 설명을 듣고, Harvard MBA Program에 도전하



↑1983년 6월 Harvard 대 MBA과정 졸업식 때 가족들과 같이 촬영한 사진이다. 왼쪽이 아내, 오른쪽이 어머니, 그리고 앞은 두 딸이다.

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Harvard MBA Program은 들어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졸업하기는 더 힘들기 때문에 입학 뿐만 아니라, 졸업까지 확실히 자신이 있을 때에만 도전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려, 자체 점검부터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Fixed Factors와 Variable Factors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 Harvard MBA Program에 들어가기 위한 Fixed Factors를 살펴보면, GPA와 경력·경험을 짚을 수 있는데, GPA는 3.8이므로 걱정할 바 없었고, 경력·경험 부분은 GM 근무 중에 아주 중요한 Workflow Improvement에 기여했기 때문에 (왼쪽 아래 지원서 참조) 역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Fixed Factors는 문자 그대로 단기간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고, Variable Factors에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여 Improve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 GMAT 점수와 Application Essays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Variable Factors였습니다. GMAT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GMAT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다 놓고, 매일 연습하고 주말에는 실제 시험을 치르듯이 Simulation Test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우리의 Reading Speed가 미국 학생보다 뒤지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익혀서 Direction을 읽지 않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GMAT은 3번 쳐서 최종 성적이 Quantitative는 99 Percentile, Verbal은 96 Percentile, 그리고 종합은 98 Percentile 을 받았습니다. Application Essays는 약 두 달에 걸쳐서 6번 고쳐 쓰고, 맨 마지막 제출용 Original은 University of Michigan at Flint of the Communication 교수님이 다듬어 주었습니다.

Essays 가운데 자신의 Strength와 Weaknesses를 쓰라는 것이 저로서는 제일 힘든 것이었는데 Corrine Walijarvi가 아주 절묘한 Hint를 주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Corrine이 제게 준 많은 Advice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Application을 빨리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Rolling Application이라고 해서 1년에 4번의 마감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꾸물대다가 마지막 마감 때 지원서가 제일 많이 몰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때에는 웬만큼 뛰어나지 않으면 지원서가 쓰러기 통으로 던져지기 마련"이라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남들은 합격 Chance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다 원서를 제출하지만, 저는 준비를 잘했고, GMAT과 GPA 등 모두 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서, Harvard 난 곳에만 지망하기로 작정하고 원서를 제1차 Deadline에 맞춰 Thanksgiving Day 무렵에 보냈더니 정초(1981년 1월)에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아무런 계획 없이 '기회의 나라'라는 말만 믿고 미국에 와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GM에서 근무하게 됐고, 남들이 동경하는 Harvard MBA Course에 합격했는지를 대충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도 기회는 수 없이 오고 가고 있으나, 우리들은 그것을 기회인 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 차리긴 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무수한 전파가 날아 다니고 있으나, 그것을 잡을 수 있는 TV 채널에 바로 맞춰줘야 원하는 Program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이웃을 서로 더 잘 돕기 위해서 기회의 Channel을 잘 맞춰 봅시다.\*\*\* <끝>

Application form for Harvard University, dated Nov 24 1980. Includes fields for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form is partially filled out with handwritten text.

←Harvard 경영대학원 지원서의 일부, 제6항의 3 가장 중요업적 소개 난에 GM에서의 Process Improvement한 점을 부각시켰다. 2개월이 넘는 Backlog를 Workflow 개선으로 2주 정도로 낮췄다. 내 권한 일부를 26개 지역사무소로 이관시켜 26명의 임무보조원을 확보, 필요서류를 검토후 양식에 한 건당 한 장에 요약, 보고하고 모든 증빙서류는 현지보관, 내가 요구할 때만 보내도록 업무량과 일처리를 빨리해 부장으로부터 크게 신임을 얻었다.

이슈 시국 칼럼

# 6.25와 한반도의 비극



박취서(약대 60)

소위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그동안 남한에 대해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공갈 협박을 일삼아 오면서 줄타기 외교를 해오던 독재자 김정일이 죽었다.

그동안 밥을 굶어가며 그를 위해 희생되어 온 북한 주민들이 그의 죽음을 예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보면서 북한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제 겨우 27세 밖에 되던 김정은이라는 젊은이가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새로운 3대 세습(世襲)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과연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의 반쪽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심경이다.

내 나이 만 8세 되던 해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서대전이라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다.

아버님은 당시 대전 형무소에서 간수(지금의 형무관) 직책의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셨다. 내 기억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기 1-2년 전부터 동네 어른들이 "시골 들판에 자생하는 어느 풀잎에 자주색 반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날 흉조"라고 말씀들을 하시곤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한반도는 유사 이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동족간의 피투성이 전쟁터로 변화했다.

전쟁이 시작되고 서울이 함락되고 얼마 후 우리 가족은 어느 먼 친척이 살고 있는 흑석리라는 계룡산 근처의 마을로 걸어서 피난길에 올랐다.

나는 그 마을에서 피난생활을 하면서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던 어느 황소가 목격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끔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 해방군들이 나와 같은 꼬마들을 모아놓고 장백산으로 시작되는 이북 애국가를 가르쳐주면서 딱 같은 먹을거리를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하루는 아버님께서 불 일이 있으시다면서 집을 나가셨는데 그 이후 오랫동안 종적을 감추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을에 있는 어느 산의 동굴에 피신하고 계셨다는데 사연인

즉 대전 왔다 오시는 길에 인민군에게 체포돼 인민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때의 재판관이 아버님께서 대전 형무소에서 형무관으로 있을 당시 정치범의 한 사람으로 복역하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당시 아버님과 같은 케이스는 반동분자의 한 사람으로 즉결 심판을 받은 후 총살형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판결은 인민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한 후 새로운 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해 무슨 일을 맡길 터이니 내일부터 이곳에 나오라고 하였다 한다.

결국은 죄수였던 그 재판관이 아버님의 목숨을 살려준 셈이었는데, 아버님께서 "평소 그 죄수에게 베풀어 주었던 온정에 대한 답례치고는 너무나도 과분한 선물이었다"고 하시면서 "평소 어느 누구와도 적을 만들면서 살지는 말라"고 말씀하시곤 하시었다.

6.25가 끝난 후부터 아버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접으시고 장사를 하시면서 우리 5남매를 키워주셨다. 그 이유는 전쟁 중 경험한 여러 가지 쓰라린 고통이 주 원인이었던 것 같다.

한국전쟁은 UN군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천상륙작전과 1.4 후퇴 등으로 얼치락 뒤치락 하면서 휴전이 될 때까지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내 나이 이제 70세가 넘었다. 62년 전 6.25전쟁은 구 소련과 중공의 지원에 복조선 인민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기습공격을 해오면서 시작됐다. 지지난 해 3월 피격된 천안함도 6.25때의 상황과 똑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두 동강이 나버렸다. 해방이 되던 해에 한반도가 38선을 경계선으로 두 동강이 났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나는 62년을 전후해서 일어난 6.25전쟁,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잠수함 침투사건, 연평도와 대청도 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여러 사건들이 남한과 북한 주변 배우자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이라는 주변배우들과 함께 38선이라는 분단선을 놓고 벌이는 힘겨투기라고 본다.

그러니까 62년 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소위 '민족 해방'과 '북진통일'이라는 김일성과 이승만 정권의 정치 명분하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 시험장으로 변했던 한반도의 모습은 지금도 '나라사랑'이라는 대 명제하에 벌이는 정치놀음으로 보인다.

역사를 거슬러 옛 삼국시대를 되돌아 보면 지경학적으로 오늘날의 북한은 고구려로 그리고 남한은 신라와 백제의 연합국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우리 한반도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 동문여행 예찬기



정정수(의대 56)

나는 은퇴하기 전에 미국 마취학회에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주로 외국의 우수 관광지에서 할 때 많이 참석했고 은퇴하고 난 후에는 친구들과 외국 단체 여행을 많이 다녀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장거리 여행도 건강에 무리가 가고 지금은 여행 다큐멘터리 방송이 너무나 선명하고 자세하게 잘 돼 있어 오히려 실제로 간 것보다 더 심도있고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근래에는 움직이는 호화 호텔 크루즈를 특히 동문들과 같이 가는 데 아주 재미를 느낀다.

작년에는 동문 동기 12쌍이 LA출발 멕시코 크루즈를 다녀왔는데 매일 저녁 7시에 우리 단체 회의실에서 가라오케 비디오 상영 기술 협조를 해주어 우리끼리 식당에 앉아 와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와 경담을 나누고 동기 회장 민경환군이 고스톱을 가르쳐 주면서 돈을 모금하는 재미도 알았다.

지난 1월에는 미주 서울대 의대 문예동 동창회장과 부인, 서인석·김중권·권성달 의 많은 동문들의 탁월한 준비와 계획으로 올란드 하이아트 호텔에서 주유같은 1-2세 연사들의 의학 강의를 들었다. 또한 볼

틈에서 저녁에 가진 연회들은 모든 참석회원의 추억이 가득한 즐거움을 자아내었다. 백승원(의대 79졸)후배님의 재치 있는 사회 습씨, 부부가 특별히 준비한 무도의상으로 모든 이들을 감탄시켰다.

호텔 통계 학술대회 후에 230여 명의 동문들이 대철 버스에 분승해서 Cape Carnival 항구로 호화선 Royal Caribbean, Sea of Freedom, western Caribbean Cruise로 7일간 항해를 시작했다.

한용현(의대 48졸), 50년 졸업 선배님 및 분, 강신호(의대 52) 회장님, 박용현 의대 동창회장님(68)을 비롯해서 모든 연령의 선후배 동문님들, 지팡이, 보청기를 이용하는 분, 어느 분의 농담처럼 알츠하이머는 아니더라도 Quarterzciners는 필자를 비롯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명찰의 도움이 절대 필요했다.

우리 전용 큰 회의실에는 가라오케, 교양강좌, 배에서 제공하는 출강의, 각종 오락과 함께 오랫동안 만난 선후배님들이 일주일간 한 배, 같은 식탁에서 지나는 이야기들, 앞으로 계획, 각종 모르고 있었던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일주일일 눈깜짝 하는 사이에 아쉽게 지나갔다. 참고로 2년 전 만났을 때에 비해 친구 4쌍이 이스탄불-베니스 크루즈로 12일간 700명이 탑승하는 초고급 호화선을 탔는데 초고급 음식도 며칠 지나니 혀가 잘 모르 는 것 같았고 극장 하나 밖에 없는 오락 프로그로 심심한 12일을 보냈다.

이 크루즈가 끝나고 캘리포니아 라구나우드라는 은퇴촌에 선후배님들이 많이 모여 재미

있게 산다는 소문을 확인하러 2개월간 세를 내어 가졌다. 학회·동기회·동창회 등 여러 기 회로 1-2주간 자주 방문해서 LA·산티아고·타마콜라·디즈니랜드 호텔에 모여 콜프치고 지 냈지만 남가주에 이렇게 맑은 동문들이 한 동네에 모여 즐거운 은퇴생활을 즐기며 사는 데 참작 놀랐다.

각 지역에서 교수·연구기관, 대기업 중역, 심지어 한구공신 요 기관에서 발전이 이루어진 분, 한국에서 친구들의 소문을 듣고 이곳의 좋은 기후 환경에 끌려 한국에서 정·관계에서 한 자리 하다가 한구 반, 여기 반 지내시는 분들도 많았다.

라구나 한인회·서울대 동창회 에도 참석할 기회가 있어 이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라구나 의대 동창회 김정수 동문(의대 65졸)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생의 종착역 라구나 힐'을 물어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임원제(의대 65졸) 동문의 사진 봉사로 우리 의대 동문들의 늙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

플로리다 등 많은 곳을 살아 봤지만 습기도 모기도 없고 항상 꽃이 피며 모든 Ethnic Food and Facilities가 거의 한국 수준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이 분들은 이곳이 '지상 천국' 이란다.

"매일 Perfect한 날씨에 감탄해서 콜프를 치다가 '날씨 정말 좋다' 라고 말 실수를 하면 금방 '어서 오셨지요?' 하고 춘승 취급을 하니 그저 '좋다' 라고만 하라"고 하는 동기 동창 조영호군의 충고를 받아들여 로마에 오면 로마인 처럼 행세하기로 했다.

2개월 동안 지내면서 많은 선후배님들, 친구들의 도움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 다시 올 것을 기다려본다.\*\*\*

<캘리포니아에서>

것인가 하고 궁리들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식민지 신분으로 전락한 우리의 조국 한반도의 모습이 라면 너무나도 과장된 표현일까?

1950년부터 3년 동안 피비린 내 나는 전쟁을 치른 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아름다운 한반도는 빌거벗겨졌었는데, 요즈음은 얼굴에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혀서 화려해보이기는 하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중국의 꼭두각시 광대노릇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은 팍팍한 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어떠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는 요원할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의 한반도의 비극을 그 누가 알아주고 동정해줄 것인가?

우리는 62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위치가 세계사의 좌표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한반도의 주인인 남한과 북한은 그 어느 나라 기 것으로 만들어서 장래에 불

이라는 분단선을 허물어주지는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은 그렇게 손쉽게 한반도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I will leave you guys alone!)" 라고 말하면서 시원스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있을만 하면 터뜨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또다시 6.25와 같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더 이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결코 102년 전에 이웃 나라 일본에게 국권이 피탈(被奪)되던 때의 모습을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천안함이 두 동강으로 갈라지면서 바다 속으로 침몰했듯이 반만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오 고 있는 이 한반도가 38선이라는 분단선 때문에 침몰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나간 한 세기 동안은 너무나도 서글프고 통탄할 한반도 민족 공동체의 비극적인 수난사였다.

하느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주시는 고난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요즈음의 시국이다.\*\*\*

<Fullerton, California에서>

고국 동문동정

수상

▲金商周(금속공학 49-56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장)=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수훈.  
▲柳根一(정치56입) 前조선일보 주필=4월 9일 재단법인 徐載弼 기념회(이사장 安秉勳)로부터 제2회 서재필 인문문화상 수상.  
▲黃善孝(물리61-66 한밭대 명예교수)=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수훈.

▲李明哲(의학67-73 가천대 길병원장)=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수훈.  
▲姜信榮(기계공학69-73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수훈.

▲金鍾勳(건축69-73 한미글로벌 회장)=최근 매경이코노미가 뽑은 '2012 한국의 100대 CEO'에 선정.  
▲朴丁基(화학공학74졸 KAIST 교수)=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옹비장 수훈.

▲徐相熙(금속공학70-74 KIST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단장)=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수훈.  
▲尹慶勳(재료공학 71-7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수훈.

▲朴成柱(화학72-76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옹비장 수훈.  
▲周維龍(금속공학72-76 포항공과대학 연구원장)=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수훈.

▲郭在源(공업교육73-77 중앙일보 직원 논설위원)=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옹비장 수훈.  
▲尹錫厚(농화학 73-77 한국식품연구원장)=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閔赫九(자원공학75-7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수훈.  
▲崔龍卿(생물교육 75-7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연구소장)=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수훈.

▲具滋溶(물리77-8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수훈.

▲車國憲(화학공학 81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 수상.

▲이희일(대학원81졸 한국해양연구원 부장)=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수훈.

▲魯都永(물리81-85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수훈.  
▲林孝淑(지구과학교육81-8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실장)=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魏乘水(무기재료82-86 KAIST 교수)=지난 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옹비장 수훈.  
▲張 晩(대학원83-85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4월 20일 제4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옹비장 수훈.

▲金弘奎(공예83-88 창원대 교수·한국디자인진흥원 이사)=4월 13일 13일 충남 논산시로부터 계백장군 동상 제작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成承輔(의학84-90 모교 미생물학교실 교수)=지난 4월 16일 의사신문 창간 52주년 기념식에서 제45회 유한의학상 수상.

▲조가현(기약02-06 바이올리니스트)=지난 4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막스로스탈 국제콩쿠르에서 바이올린 부문 1위 수상. 또 11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교향악축제에서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金宗圭(AMP 29기 삼성출판박물관장)=오는 5월 21일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제15회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원로부문) 수상.

▲陳 崧(경제59-63 삼성KPMG 고문)=지난 4월 16일 임기 3년의 한국화중 앙연구원 이사장에 선임.

▲成鍾漢(농업교육63-70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이사장)=지난 4월

17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제15대 총재에 취임.  
▲高鉉哲(법학65-69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4월 18일 한국신문윤리위원장에 선임.  
▲丁惠源(의학69-75 모교 병원장)=지난 4월 4일 한국 국제의료협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선출.

▲嚴基永(사회70-74 前MBC 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4월 16일 임기 2년의 경기문화재단 제4대 대표이사에 취임.

▲姜謙謨(건축73-77 前삼척물산건축사업본부장·진무)=최근 국중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鄭東錫(전기공학 73-77 인하대 교수)=지난 4월 23일 제8대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에 취임.

▲閔賢植(국어교육73-77 모교 국어교육과 교수)=지난 4월 13일 임기 2년의 국립국어원 제9대 원장에 임명.

▲徐炳旻(의학73-79 한동대 선린병원 정형외과 과장)=지난 4월 1일 제7대 한동대 선린병원장에 취임.

▲全美美(기약74-78 한국교원대 교수)=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한국교원대 제4대학 학장에 선임.

▲元一宇(건축75-79 前대우건설 개발사업본부장·부사장)=최근 금호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柳澤澤(계약76-83 군장대 석좌교수)=4월 23일 임기 2년의 서울시유지재단 단장에 임명.

▲金甲敏(사법81-85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지난 4월 3일 임기 2년의 사단법인 국제경제실무회 제2대 회장에 선출.

▲李 峻(사법81-85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지난 4월 9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임명.

▲牟喆敏(행대원82-87 前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동아대 석좌교수)=4월 13일 서울 예술의 전당 사장에 취임.

▲朴世勳(의교86-90 한화갤러리아 전무)=최근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부사장 겸 한화타일월드 대표이사 선임.

▲朴秉濂(법학50-55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한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모교 법대 鄭宗燮

(법학7-81)학과와 함께 `師弟同行'을 주제로 시예전 개최.  
▲沈載甲(행정52-56 吉莢義선생기업사업회 교문)=최근 `한글과 영어로 읽는 論語 - 김영희 선생이 고른 논어명구집'(삶의길) 발간.

▲俞東濬(잠사56-60 부운장학회 이사장·鼎月 羅憲錫기념사업회장·수원지부동창회회장)=지난 4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 자치센터에서 나혜석 바로알기 학술 심포지엄 개최.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중앙회장)=지난 4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2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具本茂(응용미술60-66 미술파비평 상임위원)=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대치동 무역전시장(SETBC)에서 열린 제5회 A&C 아트페어에서 작품전 개최.

▲權 誠(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최근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자취와 언론중재제도 발전 과정 등을 수록한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발간.

▲金熙俊(철학61-65 관악디베이팅클럽 회장)=지난 3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규장각 세미나실에서 한국·핀란드 수교 39주년을 기념해 미니오자 특임대사 초청 강연회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4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예술지원 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4월 27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金裕煥)과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북한의 최근 경제법제의 동향과 평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吳斗凡(국어교육64-68 칭주대 명예교수)=최근 미국 Temple대 방문 연구교수로 초빙돼 `한국에서의 경험 돌아보기' 주제로 특강.

▲尹桂燮(상학64-68 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지난 4월 2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 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최고경영자 조찬회 개최.

▲李圭碩(지구과학교육66-73 한국교원대 석좌교수·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지난 3월 22-23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 내실화'를 주제로 전국과학교육담당자 세미나 개최.

▲朴憲烈(화학공학 67-71 중앙대 교수·국제유희학회 회장)=지난 3월 31일 서울 중앙대 대강당에서 `미래 농촌 발전을 위한 유희적 접근 방안'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郭贊浩(신대원69-71 한국동일문화연수원 이사장)=최근 6·25참전유공자의 성동구지회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천안 함 폭침 2주년을 맞아 `제2의 6·25남침 잊지말자' 그리고 기억하자' 특강.

▲申成濤(응용물리71-75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총장)=5월 2일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비전 선포식 및 학사 캠퍼스 기공식 개최.

▲柳權永(의학72-78 모교 예방학과 교수·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 사무총장)=지난 4월 26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鄭妍姬(조소78-82 낙우조각회 회장)=지난 4월 6-26일 서울 평창동 김중영미술관에서 `낙타, 반세기를 건너다'를 주제로 50주년 기념전 개최.

▲徐孝淑(회화81-85 서양화가)=오는 5월 16-22일 서울 건지동 몰파스페이스 갤러리에서 `New insight on life'를 주제로 초대전 개최.

▲金男洙(기약89-96 성남시립교향악단 부수석)=지난 5월 8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트럼펫 독주회 개최.

▲黃善映(국악02-06 모교 음대 박사과정)=지난 5월 10일 서울 부암아트홀에서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로 가야금 독주회 개최.

▲朴永淳(ACAD 43기 한국기업경영인 회장)=지난 5월 1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제11회 한국추사학회예술전국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작품으로 전시회 개최.

▲安銘元(HPM 6기 부천대 객원교수)=지난 4월 24일 국내 10개 개척교회에 여름용 목회자 셔츠와 생필품 전달. 또 27일 안산 선교센터에 의류 80점 지급.

▲申一汕(AMPRI 14기 나노카보나 대표)=지난 4월 18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나노카보나 신사옥에서 헬스케어센터 오픈 기념식 개최.

참가 명부를 빕니다

▲金成俊(사학48졸 前수원대 석좌교수)=4월 12일(92세)  
▲田濬新(심리47-53 고려대 명예교수)=4월 14일(91세)  
▲金龍宇(사학62-66 덕성여대 명예교수)=4월 4일(68세)  
▲盧栢寅(영문74-78 前국무총리실 비서관)=4월 8일(57세)

인사

▲陳 崧(경제59-63 삼성KPMG 고문)=지난 4월 16일 임기 3년의 한국화중 앙연구원 이사장에 선임.

▲成鍾漢(농업교육63-70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이사장)=지난 4월

행사

▲朴秉濂(법학50-55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한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모교 법대 鄭宗燮

▲崔龍卿(생물교육 75-7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연구소장)=지난

▲崔龍卿(생물교육 75-7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연구소장)=지난

▲崔龍卿(생물교육 75-7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연구소장)=지난

▲崔龍卿(생물교육 75-7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연구소장)=지난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 및 업소룩비•기타 후원금(\*2011년 7월1일~2012년 6월 13일까지)

2011.7~2012.6월 동창회비

►Alaska

- 윤계중(농대 55)

►California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Arizona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Minnesota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Michigan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New York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Texas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Washington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Oregon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Idaho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동문께서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Tax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ID No. 13-3859506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의 기간이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에 보내주시시오.  
snuausa@yahoo.com  
총무국장 백육자 (818-225-8411)

►Georgia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Illinois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Kansas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Kentucky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Louisiana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Maine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Massachusetts

- 김영철(공대 55)
- 김찬홍(농대 79)
- 박양제(약대 48)
- 유기석(문리 60)
- 정문필(사대 59)
- 지영환(의대 59)
- 진명규(공대 70)
- 최종태(공대 69)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1년 7월 ~ 2012년 6월)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집주소:		전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관악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룩 광고비	일반광고비	특별후원금	
연\$200 <input type="checkbox"/>			명함크기(3.5" x 2") \$100 <input type="checkbox"/>	동창회 후원금 \$ <input type="checkbox"/>	
연\$500 <input type="checkbox"/>	2011-2012년 \$75	2011-2012년 \$120 <input type="checkbox"/>	1/6면 (5" x 4.5") \$200 <input type="checkbox"/>	지부 분담금 \$ <input type="checkbox"/>	
연\$1,000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명함1/2 \$2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 x 4.5") \$400 <input type="checkbox"/>	총선 이사비 \$ 3,000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디자인명함크기\$500 <input type="checkbox"/>	1/2면 (10" x 6.7") \$800 <input type="checkbox"/>		
			전면 (10" x 13.5") \$1000 <input type="checkbox"/>		
보내실 곳: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83 e-Mail: snuausa@yahoo.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USA'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USA	





#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AZ 아리조나**  
Tempe Korean Methodist Church  
김찬홍(농대 79) 480-229-8826  
1265 S. Sokomon Dr. Mesa AZ 85204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동(공대 58) (213)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714) 213-8157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훈(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Sierra Padre Mill Co.(건축자재 생산)  
임철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Kim & Kang CPA's**  
(김경우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A.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A. CA. 90010

**신대석 공인회계사**  
\* 신대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A. CA 90010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A.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325-0400  
2740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Kim & Youn A Prof. Corp**  
윤흥원 (사대 81)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A,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명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A,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440 Wilshire Blvd. #807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A,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A,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A,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 South. Tower #1310 LA, CA 90010

**Kwang Hee Nam CPA**  
남광희(인문) 213-487-1686  
3700 Wilshire Blvd #939 LA. CA. 90010

**Jung Mo Park & Co**  
박정모(문리대 66) 213-383-1390  
3255 Wilshire Bl. #1700 LA. CA. 90010

**강경수 공인회계사**  
강경수(법대 58) 562-644-3085  
12125 Julius Ave. Downey CA. 90242

**Koowon Kwun CPA & Assoc.**  
권국원(공대 69) 213-480-0520  
869 S. Irolo St. LA. CA. 90005

**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명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은행업**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동하(경대원 82)  
Tel (714)469-4584 (213)500-6458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리테일러**

**한남채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 원 (대학원 74)**  
323-232-1700 901E. 31st St. LA. CA. 9001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  
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진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석업**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업**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yahoo.com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법대 58) 562-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A, CA 90029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임철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Pacific Group USA(대평양상사)**  
하상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기술/호텔/숙박업**

**LinkTV Media.**  
김원락(공대 65) 818-768-5494  
P.O.Box 1368 Sun Valley, CA 91352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James Lee 부동산**  
이종묘(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영역가공**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영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Jade Textile, Inc.**  
임예진(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우주개발

JAY H. CHUNG, Ph.D.  
President & CEO

**TAYCO ENGINEERING, INC.**  
Spacecraft • Aircraft & Missiles Advanced Systems Manufacturer

정재훈(공대 64)

10874 Hope Street • P.O. Box 8034  
Cypress, California 90630 USA  
Telephone 1-714-952-2240, Fax 1-714-952-2042  
E-mail: jayco@taycoeng.com  
http://www.taycoeng.com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86 S. Harvard Blvd. #200, LA. CA 90004

청운장학회  
오재인(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교육/상담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818-456-8022  
185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24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A.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 3435  
Wilshire Blvd. #2500 LA. CA 90010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보험/재정계획

S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 (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서비스/자동차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명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  
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  
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명대학원 59) (213) 386-5809  
38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A. CA90006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 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Hills Animal Hospital  
손수웅(수의대 60) 626-919-7661  
1414 Azusa Ave. #B-13 W.Covina CA 91791

Glenoaks Animal Hosp.  
최용준(수의대 81) 818-840-9700  
2037 W.Glenoaks Bl. Glendale CA.91201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631-2080  
475 College BL. #48 Oceanside CA. 92057

Glendora Animal Hospital  
강상봉(수의대 66) 626-914-5717  
169 West Arrow Hwy Glendora CA 91740

Hill Pet Hospital  
김희원(수의대 73) 510-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Inland Animal Hospital  
김명윤(수의대 69) 909-947-4040  
2417 Grove Ave. Ontario CA 91761

Petra Pet Clinic  
김용수(수의대 88) 714-523-1190  
14768 beach Bl. La Mirada CA 90638

Mission George Animal Hospital  
이재현(수의대 76) 619-280-1503  
6690 Mission Dore Rd. San Diego CA 92120

Plaza Pet Hospital  
이사균(수의대 79) 949-581-7979  
3 Roncho Circle Lake Forest CA 92630

건축 컨설팅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희/광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은행

Wilshire State Bank P.C.O.  
유재환(상대 67) 213-387-3200  
3200 Wilshire Bl. LA. CA. 90010

BBCN (Bank)  
Alvin Kang 213-639-1700  
3731 Wilshire Bl. Ste.1000 LA.CA.90010

Commonwealth Business Bank  
조앤 김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640 Los Angeles CA 90036

Hanmi Bank  
행장 유재승 213-382-2200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Center Bank(중앙은행)  
Richard Cupp 213-251-2222  
3435 Wilshire Bl. #700 LA. CA. 90005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Mat's Pharmacy  
정만영(약대 66) 626-791-7595 2750  
E. Washington Blvd. Suite 150 Pasadena CA91107

KOAM Pharmacy(한미약국)  
전광자(약대 62) 562-402-3636  
18102 Pioneer Blvd. #101 Artesia CA 90701

K's Pharmacy  
김진호(약대 64) 909-591-7420  
12582 Central Ave. Chino Artesia CA 90701

밸리웨스트 약국  
민병관(약대 68) 626-289-4343  
1935 W. Valley Blvd. Alhambra CA 91803

Howard Drugs  
심화설(약대 61) 562-866-5795  
5818 N. Bell Flower Lakewood CA 90713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치과

오흥조 치과  
\*\* 오흥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승(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진호주 치과그룹  
\* 진호주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최병식 치과  
최병식(치대 56).....(213)381-1112  
3421 W. 8th St. #1 LA. CA.90005

김경수 치과  
김경수(치대 58).....(213)482-5462  
1127 Wilshire Bl #1500 LA.CA.90017

김정 치과  
김 정(치대 59).....(714)641-2939  
204 E. Warner #104 Santa Ana. CA.92707

Lim Dental Corp.  
임화식(치대 59)  
1211 N. Vermont Ave. #102 LA. CA 90029

한중철 치과  
한중철(치대 62) 562-860-8544  
11846 E. Carson St. Hawaiian Gardens CA  
90716

김재중 치과  
김재중(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최미혜 치과  
최미혜(치대 62).....(213)386-4919  
3000 W. Olympic Bl. #300 LA. CA.90006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조상우 치과  
조상우(치대 64).....(310)637-6187  
402 S.Long Beach Bl. Compton CA90221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Kenneth K.Chang,DDS.(장기열 치과)  
장기열(치대 55) 323-930-1744  
4026 W. Olympic Bl. LA. CA. 90019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248-0124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중훈 치과**  
정중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신우식 치과**  
신우식(치대 59) (714)540-5151  
2112 S. Bristol St. Santa Ana CA. 92704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207 LA.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조광제 치과**  
조광제 (치대 82).....(562)696-3334  
8330 Painter Ave. #B Whittier CA.90602

**의료/내과/전문외**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9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차민영(의대 76).....(213)480-7770  
520S. Virgil Ave.#103 LA. CA. 90006

**South Bay Cancer Center**  
나정자(간호 70)  
310-978-4970 310-543-5327  
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대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용호(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1325 Via Del Reg. South Pasasena CA 91030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행정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중(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Dale Tiffany, Inc. (전기전등)**  
정예련(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l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상점/트로피**

**한국트로피**  
박양종(문리대 61) 213-380-2775  
3475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강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샬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리조트**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213)725-3844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francisco CA 94104

**동역/번역**

**Better Comm 동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안약**

**이봉수 안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식품/음식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수장 Jang Soo Restaurant**  
310-327-9292  
1404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마포 주물럭 Mapo Korean BBQ**  
Restaurant (310)679-3622  
1460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9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캘리포니아주 213-382-6660**  
이태로(법56) 1413 S. Vermont Ave. L.A. CA 90006

**샌디에이고**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84졸임) (858) 525-3222  
4228 Conr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

**상담/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5년 전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지녀 특별할인 정자선(상대 50)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의료/전문외/치과/안의원**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산부인과**  
황동희(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MD,VA 워싱턴D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8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재산관리

IPM Woath Management
이태영(법대 60) (410) 777-8081 ex158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변호사 / 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x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 / 중개업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엔지니어링 / 영공

Driveteck, Inc.
\* 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수의학 / 동물병원 / 요직업

한익성(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 / 내과 / 전문의 / 개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도상철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8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민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x,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
658-3110 hanstravel.joanna@gmail.com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te U-L. Berwyn Heights, MD 20740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통일시대연구소
이종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FL 플로리다

리태일러 / 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n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태일러/중개업

IV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 (법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이흥미 변호사
이흥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 / 중개업 / 재경상담

Green Realty, Inc.
김정필(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nnr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로알 부동산
영우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샐리 경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83

수의학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 / 내과 / 전문의 / 개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준우 치과
이준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약원 / 문외약원

RFUMS / Chicago Medical School
김윤범(의대 54) 847-578-8847
3333 Green Bay Rd. N. Chicago IL 60064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65

MA 뉴잉글랜드

병원/수의학 /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삼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MI 미시간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의료 / 내과 / 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준 심장내과 C. A. V. A
윤효준(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Evis INC.
김권식(공대 61) 952-646-0238
10250 Valley View Rd. Suite 123 Eden Praire
MN 55344

Cardiovascular Division Univ. of Minnesota
Medical School
왕규현(의대 56)
420 Delaware St. SE. Mayo Mail Code 508
Mpls MN 55455

Cardiovascular Division Univ. of Minnesota
Medical School
왕규현(의대 56)
420 Delaware St. SE. Mayo Mail Code 508
Mpls MN 55455

NJ-NY 뉴욕/뉴저지

건강

!! 맘, 에이즈!! 한인수(사대 73)영생건강 718-
76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도벌) 분리
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건축 / 설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공인회계사

Sung N. Pak, CPA
박성남(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Edward CM Kang CPA
강충우(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Wesley Y. Chung CPA**  
정일화(상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50-13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금융 / 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근우(문리 71) .....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리타일링**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Sons Pawnbrokers Co.**  
곽선섭(공대 61) (973) 345-0063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우(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9 Fort Lee NJ 07024

**무역 / 중앙영어**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택(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중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사회사업 / 법인**

**Women In Need Center**  
무지개의 집 여성 임시쉼터  
김은경(음대 82)  
P.O.Box 540929 Flushing NY 1135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활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IBECONS Int'l**  
김재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순례 \*전 지역 크루즈 투어 \*고국 방문 및 아시아 투어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239-0988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t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 / 클리너 / 장금장제**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1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정민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hrysler Building Arcade NY

**수의사 / 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보고타 골프센터**  
김난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인문 / 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 / 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 / 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완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 / 유통 / 통관**

**Kiss Products, Inc.**  
김광호(문리 62)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의료 / 내외과 / 전문의**

**이재진 심장내과**  
이재진(의대 59) 718-426-64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욱(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일반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boro NJ 08536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8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료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철 소아과**  
박범철(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진우 비뇨기과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육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범(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홍(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용(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 / 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호(약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람(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 / 교육

든든한교회  
김상근(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안악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NV 네바다

의료 / 치과병원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edentaliv.com

애 오아이오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홍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 / 내과 / 전문의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아틀랜드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 엘린 한인교회  
최근녕(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중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최환(공대 68)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금융 / 보험 / 리타일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Horsham PA

배영리법인 / 리타일 / 잡화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의사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흥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득(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민(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연약장 / 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의료 / 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약대 67) (215)-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 / 내과 / 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선(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욱 정형외과  
문대욱(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 / 치과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 - 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 224 -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TX 유스틴

수의사 / 동물병원

심코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검수 / 시험 / 컨설팅

선박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강의사

한국 강의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Tour  
박종수(공대 60) (801) 263-8866  
292 E. 36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WA 워싱턴주

서비스 / 기기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 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의료 / 치과 / 클리닉**

박찬형 내과(혈액종양 분과)  
 박찬형(의대 62졸) 316-841-8635  
 22226 Cliff Ave. So.#304 Des Moines WA  
 98198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254-5900  
 217SE 136th Ave. Suite#101 Vancouver WA 98684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425-228-7446  
 947 Pove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동물병원**

Federal Way Ani. Hospital  
 이승택(수의대 75) 253-529-0306  
 1700 S.305th Place, Ste A Federal Way  
 WA 98003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WI 위스콘신**

Gundersen Clinic  
 윤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편집후기’**

○...오인환 차기 동창회장은 동창회보 워싱턴 DC 특파원= 오인환 차기 동창회장이 지난 5월 28일 Memorial Day에 워싱턴 DC의 Korean War Memorial Park까지 직접 가서 6월호의 1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주었다. 이날 기온이 무려 88도까지 치솟은 무더위였다니 너무 송구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연출이 마치 유수 언론사의 전문 사진기자 같은 솜씨라 너무나 깜짝 놀랐다. Memorial Day에 맞춰, 또한 멀리 Ohio주에서 방문한 한국전 참전 용사 형제를 우연히 만나 쾌재라, 태극기를 손에 들러서 연출을 시켜 찍은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일반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 차기회장은 사진 설명에 ‘오인환 미주 동창회보 워싱턴 DC 특파원’ 이라고 농담조로 써서 보

내주었는데 정말 이에 걸맞는 직함(?)일 것이다. 오 차기회장은 지인수 편집위원장 요청으로 지난 3월호 ‘이달의 초대석’ 의 한 덕수 전 주미대사를 직접 인터뷰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사진까지 찍어 보내준 적도 있다. 그러나 특파원 구실을 특유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가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재직 시절 정말 운 좋게도 서울의 유수 신문사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급 인재를 한 명 발견해 기자로 채용한 적이 있었다. 여기자였는데 마치 경찰출입기자처럼 기능성은 물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지시에 딱맞는 취재와 사진에다가 깔끔한 기사 작성이 그렇게 마음에 쏙쏙 들어올 수가 없었다. 미국내 동포사회 언론환경에서 구하기 어려운 인재였다. 편집국장 시절 일을 떠올려 연계한 것은 오 차기 회장께는 대단히 실례되는 일이나 너무 감동한 때문이니 그저 해방을 바랄 뿐이다.\*\*\* <편집주간>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서치원(공대 69입) 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
	차기회장	김상찬(문리 66입) 714-396-0493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차기회장	
뉴욕	회장	김영만(상대 59입) 201-401-8977 ymkim730@gmail.com
	차기회장	김창수(약대 64입) 212-760-1768 changsookimcpa@hot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김병국(공대 71입) 781-367-5993 byungkim@yahoo.com
	차기회장	
달라스	회장	이 준(공대 73입) 469-235-6196 junelee41@yahoo.com
	차기회장	윤수경(음대 77입) 972-248-8811
특키 마운틴스	회장	표한승(치대 58입)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정은옥(간호대 75입)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서정용(공대 81입)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차기회장	
시카고	회장	김영호(의대 71) 708-922-0748 fhcmclUSA@g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입)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입) 503-317-5625 seokjiin@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송상희(문리 71입) 703-483-0801, 503-0864 sanghois@yahoo.com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윤석진(문리 64입) 425-670-9067 sock@rocket.com
	차기회장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tah.edu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박 민(음대 80입) 770-449-0000 minpakhg@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이명재(상대 58입) 512-591-7739 267-992-1077 yjlee11023@yahoo.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주기목(수의 68입) 215-990-8717 kmjoo47@yahoo.com
	수석부회장	김정현(공대 68입) 484-744-6785 dhk064@gmail.com
플로리다	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차기회장	
캐로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451 khk@ncu.edu
	차기회장	
하와이	회장	김용수(수의 75입)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하틀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부회장	
휴스턴	회장	탁순덕(사대 58입) 713-984-2066 taksoond@yahoo.com
	차기회장	이호성(공대 72입)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광호(농대 62입) 604-250-0181 604-521-3009 khlee614@naver.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입) 604-688-4039 서명회(미대 71입)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820-8261 dalhousiedc@hotmail.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감수상(의) · 이병준(상) · 오민석(법) · 이용락(공) · 오홍조(치) · 이명복(공) · 이진구(농)

명예회장 :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 김은종(상)**

차기 회장 : 오인환(문)

관후원회 부회장 : 노명호(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성주경(상)  
 총무국장 : 백옥자(응)  
 재무국장 : 강호석(상)  
 사업국장 : 이경희(문)  
 설외국장 : 이상대(농)  
 강 사 : 김재영(농) · 박명일(농)  
 기금모금위원장 : 이종도(공대)  
 IT개발위원장 : 김병연(공대)

**회보 임원**

발행인 : 김은종(상)  
 상임고문 : 방석훈(농) · 김건진(문)  
 편집위원장 : 지인수(상)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조동준(의) · 박양중(문) · 김재영(농) · 나철삼(문) · 이종도(공) · 김지영(사) · 김성수(문) · 이현영(문) · 김중하(인문)

**논설위원**

김일훈(CH) · 김기태(LA) · 조동준(LA) · 최용완(LA) · 한창섭(NY) · 백 순(WA,DC) · 육길원(CH) · 이철광(LA) · 정홍택(PA) · 윤상래(MA) · 김환수(NY) · 임승래(SF) · 장석경(CH) · 이석구(NY) · 김재환(WA) · 정요진(LA)

**회칙위원회**

위원장 = 서중민(공) · PA  
 위 원 = 한재은(의) · IL) · 이민연(법) · TX) · 윤상래(수의) · NE) · 김지영(사) · LA) · 신응남(농) · NY) · 함은선(음) · WA)

**Seas Gift**

**A Tasty Gift From The Sea**

Korean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 Use it as a garnishment on your favorite dish!
- Try it as a unique pizza topping!
- Tastes great with your favorite soups!
- Excellent topping on your favorite salads!
- Create your own sushi! Just add rice!

Paramount, CA • Ph: 562.633.7400 • Fax: 562.633.7474 • www.jayone.com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황석우(의대 53) 323-258-4765  
1325 Via Del Rey So Pasadena CA 91030

**S.J Whang M.D  
Medical Group**

www.du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문리대 82) Since 1995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82, 문리대)

- 소비자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정의 위약, 사비서비스 고객 인정하-No.1 브랜드입니다.
- 해외직 커리어니셔: 전문적이고 귀을 수 입 - 커리어니셔가 소중한 2인용 만들어 드립니다.
- 듀오만의 핵심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어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중국 외결과의 만남을 권할 경우, 7만 1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듀오 미주지사 213-383-0077 /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뉴욕지사 212-947-2525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이규섭(상대 68) CPA**

**CPA**

**(703)642-2900**  
4330 Evergreen Ln. Ste H.  
Annandale VA 22003



# New York Golf 센터 그룹



회장 이 전 구 / Rhee Jun Koo

## Golf 인생

### 1. 지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주욱 뺏으시고 백스윙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공에 정성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 2. 예의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 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동에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일세

###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보면 청개구리 공이란 놈 곰배팔이 팽이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맛은 두꺼비가 웅덩이로 뛰어들 듯 돌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 말고 초연함을 잃지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하소

### 4. 과욕은 금물

핸디를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여덟개 기회있고 일흔두번 기대있네 조금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 놈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드니 샹크뿔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하나 전홀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아닌 업보라네

###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거리 남은거리 수학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있나 그린 위에 팔락이는 핀을 슬쩍 노려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옥하고 내려치면 공이란 놈 날라가서 그린 위에 꽃힌다네

###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밭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놓을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보세 자기 것을 계산하고 내가 나를 감독하고 백에라도 단 한 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에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 7. 운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이뤄 기적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흡인원은 못할소냐?

###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여덟 흠 한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맑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푹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 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 듯이 없어졌네

### 9. 가정

하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백년을 살아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마소 천사같은 마누라와 토끼같은 우리새끼 저녁밥상 차려놓고 아빠오기 기다리네

시인 이 전 구

**New York** • Manhattan • Chelsea Piers • Long Island • Port Chester • Valley Stream • Nanuet  
**New Jersey** • Fort Lee • East Hanover • Saddle Brook • Waldwick • Edison • Springfield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212.564.2255** Fax. 212.244.6941 [www.nygolfcenter.com](http://www.nygolfcenter.com)